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총여학생회 페지, 그 너머를 상상하라

일시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306호

주최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여성학회

주관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후원 | 서울시 성평등기금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총여학생회 폐지, 그 너머를 상상하라

일시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306호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총여학생회 폐지, 그 너머를 상상하라>

프로그램 내용	
개회사: 신경아(한국여성학회장) 축사: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전체 사회: 김상애(2019 한국여성학회 여름캠프 기획단 포럼팀장)	
여는 발표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 - 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에담(이화여자대학교)	3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사회: 김홍미리(서울여자대학교)	
발표 1)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탄생과 자채종결까지 임봉(부산지역 대학여성운동 역사 기록 프로젝트팀 브릿지)	12
발표 2) 총여학생회 이후 전환에 대한 고민 -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동희(동글)(페미니즘 교육 플랫폼 비두)	24
발표 3) '학생회로서 총여와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 황주영(서울시립대학교)	30
발표 4)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 과정과 분석 윤김진서(성균관대학교)	42
발표 5) 대학에는 언제나 싸우는 여자들이 있었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 기획자)	49
토론: 미현(이화여자대학교) 정다울(중앙대학교)	
폐회사: 허주영(2019 한국여성학회 여름캠프 기획단장)	

|| 여는 발표 ||

대학 내 여성학의 현황 - 교과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예담(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학부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강좌가 신설된 것이 시초
- 1982년 1학기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석사과정이 개설됨
- 1990년대에는 69개 대학에 여성학 교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함
- 2007년 숙명여대 여성학 협동과정 폐지 결정

문제의식

-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000의 위기' 담론
-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학문의 장에까지 넘어 들어오면서 인문학 등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학문들의 위기담론이 등장 -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여성학의 위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존의 여성혐오가 더해져서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대학 내 여성학 강좌는 20대 초반 신입생 세대의 높아진 페미니즘적 요구를 잘 만족시키고 있는가?
- 여성학 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하고 풍부한 담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자꾸만 여성주의적 말과 글들이 미끄러지고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수집

○ 198개 대학

- 선정기준: 교육부 공시대상 4년제 대학교 중, 교대/과학교육대/예술대 포함, 기술대 제외
- 수집기간: 2018.7.23 ~ 2018.8.8 (1차)
- 조사대상학기: 2017-02, 2018-01, 2018-02, 2019-01
- 조사범위: 교육과정편람, 학기별 실제 개설과목 (전공, 교양 구별함)
- 검색 키워드: '(여)성', '젠더', '섹슈', '페미', 'gender', 'sex', 'wom', 'femi'.
- 제외한 과목:
 - 교양과목 중 결혼, 연애 등에 대한 기존 인식을 고착시키거나 단순히 여성의 이미지에이팅에 집중된 과목들 (아름다운여성생활 등), 커리어 과목들
 - 전공과목 중 기술적으로 여성에 대해 다루는 과목들 (여성건강간호학 등)

학내 여성학 관련 기구/전공 개설비율(2018년)



교육과정편람에 명시된 교과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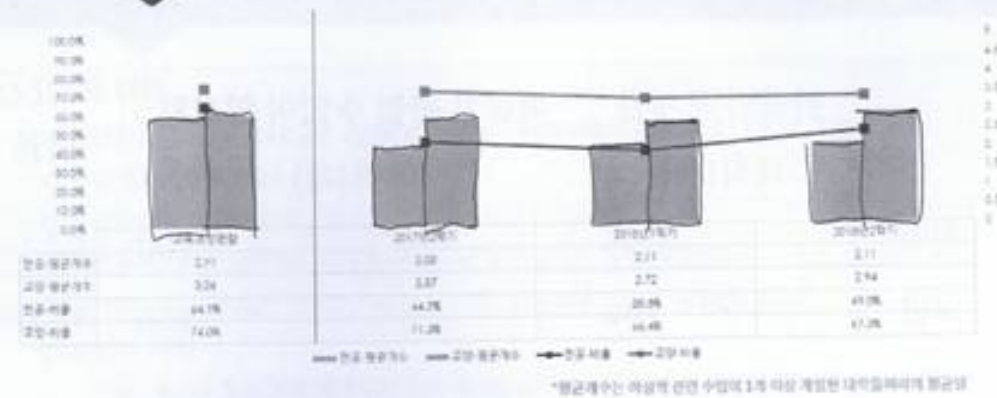
	편람이 공개된 대학(개)	여성학 관련 수업이 명시된 대학(개)	비율
전공	156	100	64.1%
교양	146	108	74.0%

실제 개설과목 현황

		개설과목이 공개된 대학(개)	여성학 관련 수업이 개설된 대학(개)	비율	개설과목수 평균(개)*
2017-2	전공	114	51	44.7%	2.08
	교양	108	77	71.3%	2.87
2018-1	전공	122	47	38.5%	2.11
	교양	128	85	66.4%	2.72
2018-2	전공	96	47	49.0%	2.11
	교양	101	68	67.3%	2.94

*여성학 관련 수업이 1개 이상 개설된 대학들끼리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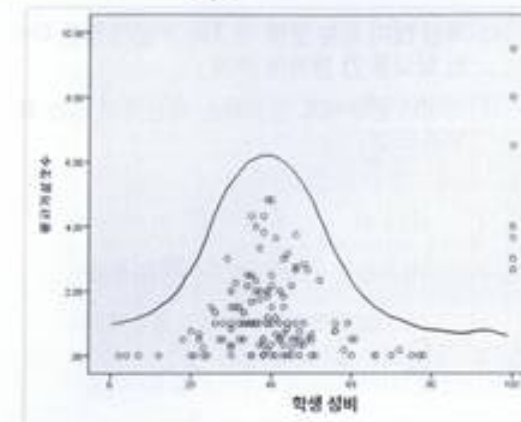
실제 개설과목 비율 및 개수의 학기별 추이



교육과정편람에 공시된 여성학 관련 과목 대비 실제 개설 강좌의 비율 (개설률)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M	0.62	0.67	0.41	0.66	0.54	0.72
(SD)	(1.06)	(0.62)	(0.50)	(0.49)	(0.89)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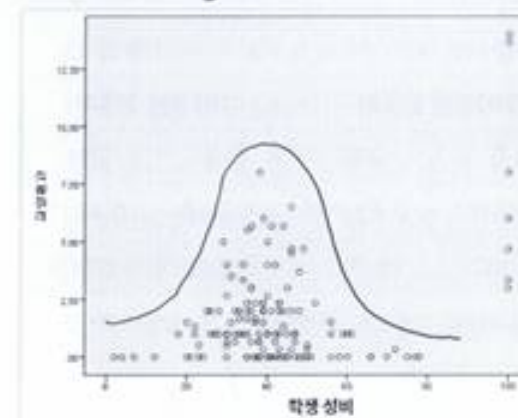
실제 개설과목 평균 개수의 분포 (전공&교양)



- 성비 100%의 학교는 여자대학임
- 성비 60~80%의 학교들은 교육대학
- 여대끼리의 편차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2개 이상 개설되는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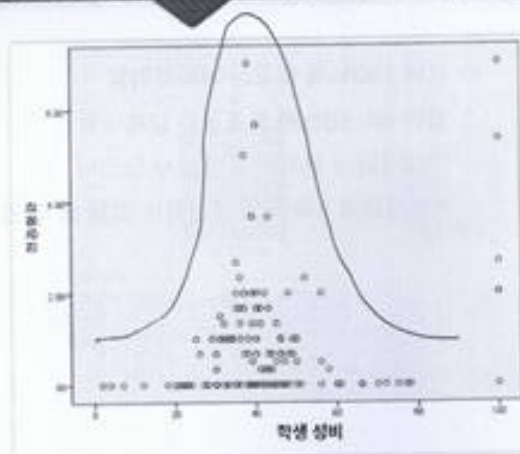
승가대, 신대, 다기대 여대

실제 개설과목 평균 개수의 분포 (교양)



승가대, 신대, 다기대 여대

실제 개설과목 평균 개수의 분포 (전공)



- 개설 많이 되는 몇몇 학교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학교들 간 편차에 주목
- 여대의 경우에도 전공에는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전공에 과목을 몰아넣고
교양에 안넣으려는 추세

재학생 성비와의 상관관계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체 대학	0.194*	0.391***	0.346***	0.421***	0.244*	0.451**
여대 제외	-0.013	-0.024	0.007	-0.027	0.020	-0.009

* $p < 0.05$, ** $p < 0.01$, *** $p < 0.001$

전체 대학 성비: 평균 43.49%, SD 16.870
남녀 공학 성비: 평균 41.42%, SD 13.158

강의명에 여성/젠더 이런 단어를 넣으면 학생들이 싫어해서
"가족과 윤리" 이렇게 뽕뽕그러 가르치는 경우 많다고 함

[참고] 교원 성비와의 상관관계 (지역별통계 사용)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전공	교양	전공	교양	전공	교양
Pearson상관계수	0.126	0.261	-0.032	0.347	0.169	0.390
(유의수준 p)	0.630	0.311	0.903	0.172	0.517	0.122

지역별 교원 성비 평균 21.92%, SD 0.03

유의수준 값이 모두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연구의 의의와 한계

- 대학 내 여성학 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도한 가장 최근의 연구
-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이용해 다양한 시도 해 보았음
- 추후 관련 연구의 예비연구로서의 가치
- 대학별 홈페이지의 구성 차이, 자료의 접근권한 차이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음
- 과목명만 보고 '여성학적' 교과인지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 -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됨

대학 내 교육과정에 주목한 이유

○ 특정 담론을 수용할 토양 = 일정하게 공유되는 사회적 합의 = 제도권 교육의 역할

○ 2018 한국인의 대학 진학률 약 70%

→ 고등교육을 통해 '일반상식'의 범위와 정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음

→ 교육부는 대학교육에 어느정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 (ACE사업, PRIME사업 등)

→ 사실상 '의무교육'이 가능한 최후의 보루

예컨대, 학부과정 전체 이수학기의 1/5 은 여성학관련 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하도록 의무화 + 지속적 커리큘럼 개발과 모니터링 등이 필요

교과과정편찬뿐 아니라 실제 개설과목에 페미니즘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또는 성차별적인 관점을 제거해나 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학내 페미니즘이 투쟁하는 것처럼, 여성학 역시...

○ 여성학 바깥(의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여성주의적 관점의 담론과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 여성학 교육과 학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와 학내 성범죄 같은 사회문제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언어화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학 교육의 존재 이유를 피력해야 하고

○ 기초교양교육을 통해 여성학이 하는 말을 여성학 밖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정도가 되게 해야 한다

[현상: "여성학? 여자 공부 대해 배우는 거예요?" / "그거 신부수업 같은 거 아니야? 사립 잘 가려고 그래?"]

나가며

○ 여성학은 pre-paradigm이기 때문에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학제성만을 유지하다가 자칫 학문적 게토로 전락할 수 있음(코이너, 1986).

○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여성학 내부에서의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물들이 사회의 더 많은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의 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언젠가 페미니즘 제 N물결이 오고 그에 대한 N+1번째 백래쉬가 와도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학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여성학 교육의 제도화에 대해 더 많이 꾸준히 이야기해야 함.

여성학이 교과과정에 자리잡으려면 학교당국과 정책의 힘이 필요.

참고문헌

○ 샌드라 코이너. (1986). '학문 분과로서의 여성학 : 학문의 근거와 방법론',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페미니즘에서 재인용.

○ 안상수, 박성정, 김금미. (2011). 성평등 실현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세화, 신옥희, 조형. (1984). 여성학 교과과정 재정립을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분석 및 평가-자료집.

○ 이연희, 구무서 기자. 2016.06.06. 기획연재: [젠더이슈, 대학이 나서자②]대학 여성학 교육의 어제와 오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979>. 한국대학신문.

○ 이연희, 김소연, 구무서 기자. 2016.06.14. 기획연재: [젠더이슈, 대학이 나서자③] "대학 젠더교육, 정부 정책 영향 절대적".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189>. 한국대학신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서비스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Ⅱ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Ⅱ

주제 발표 1.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탄생과 자체종결까지

임봉(부산지역 대학여성운동 역사 기록 프로젝트팀 브릿지)

들어가며

2018년만큼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을까. 대학 시절 총여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진 당사자로서 부산 동아대 총여 폐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서울의 총여 폐지 소식에 안타까웠고 슬펐고 분노했다. 대학 여성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15년 전 졸업한 대학여성운동이 여전히 내 마음을 휘저었던 건 공교롭게도 2018년 '부산의 대학여성운동 역사복원 프로젝트팀, BRIDGE'란 이름으로 부산대학교의 여성운동 역사를 복원하고 정리하여 기록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여성운동을 기록하겠다는 시도는, 2017년 늦가을, 오랜 휴지기를 끝내고 새롭게 싹트고 있는 부산대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에게 언니들의 역사가 전달되도록 그 시절 언니들이 응답해달라는 한 선생님의 요청과 대단했다던 학생운동 역사 그 가운데 여성운동은 없었냐는 오늘의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궁금증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BRIDGE로 묶인 과거 총여 활동가들도 이 요청에 응답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기록해서 전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스스로도 총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 했으며,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BRIDGE는 뒤엉킨 소용돌이 같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찬찬히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시절의 성취, 갈등, 아픔까지 모두 전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부산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형성되어 20 여 년 간 이어졌던 여성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당시 활동가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병행했다. 2018년 인터뷰에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 했던 당시 활동가 30명이 참여했다. 87,88년 두 해의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기, 89년 1대 총여학생회에서부터 마지막 해인 2003년까지 모든 연도의 활동가들을 만났으며,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1년 치 부대신문 전면을 살피고 일부 남아 있던 과거 총여에서 발행한 인쇄물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구체적 타임라인이 완성 됐으며 총여학생회 탄생 경로와 자체 종결의 이유도 규명되었다.

이글에서는 부산대라는 지방 국립대에서 여학생 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고, 여학생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무엇을 기점으로 변화했는지와 종국엔 어떤 고민을 안고 '자체 종결'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개괄적으로 훑어볼 예정이다.

끝으로 이 글은 2018년 BRIDGE가 엮은 <우리가 있었다_1985-2005, 부산대 여성운동의 기록>의 일부를 필자 개인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으로 BRIDGE 전체 의견은 아님을 밝혀둔다.

1. 여학생운동과 여성 주체의 형성

1) 여학생운동은 여성운동인가?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이 벌이는 사회운동으로 개념화되었다. 여학생이 주체가 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등 기존 학생운동 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학생을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동인으로서 정의된 부분이 존재했다. 더불어 여성해방이론들이 서구에서 수입되고 여성해방을 목표로 상정한 여성단체가 생겨나면서 성별관계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여학생운동'의 내용으로는 학생·사회운동의 구호와 여성해방의 구호가 동시에 수용되었다. 학생운동 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는 '부문운동'으로 위치하여 학생운동·사회운동을 본류로 하며 그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학생운동·사회운동은 '공간운동'으로 지칭되고, 여학생운동은 그에 '복무'해야 했다. 특히나 87년 민주화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고 그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하며, 그 뒤에 순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질서를 만들게 했으며, 이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사회변혁이론이 존재했다. 그래서 여학생운동 또한 "변혁운동에 있어서 모든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 동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직접적으로 억압받는 자가 그 주인 주체가 되어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하였다.

'여학생운동'으로 불리는 총여학생회 주도의 대학여성운동은 그런 80년대의 상황 속에서 탄생했으며 부산대 총여학생회의 여학생운동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이라는 여성의 3중고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제시한 '자주적 여성운동'으로 개념화된 민족민주계열 운동에 기반하고 있었다.¹⁾ 그로 인해 이들은 주로 '정신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어서 '일본군 성노예'로 개념이 변화한 민족문제에서 기인한 여성문제나,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대상 범죄, 통일운동, 여성노동문제 등을 주요한 자기 내용으로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더불어 시대에 따라 성상종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이슈들이 추가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성적치나, 영페미니스트의 활동들은 이 '여학생운동'의 범주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이 형성한 담론이나 행위가 '여학생운동'의 내용이 변화하는 동기로 작용하여 대학여성운동으로 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여학생운동'도 대학여성운동으로 의미화 되어야 한다. 여학생운동가들은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벌인 유일한 주체들이었으며, 여성운동의 담론 변화 과정을 대학에서 함께 겪고 여성주의의 길로 행진하며 대학의 여성운동 역사를 구성해왔기 때문이다.

부산대에서 초기 여학생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강력한 학생운동이 주도하던 대학에서 여학생운동이 인정받기 위해 강박적으로 학생운동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해방을 자기 목표로 설정한 여성운동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학생운동과 동류의 운동임을 행위으로써 증명하려 했다.

1) 97년 제9대 총여학생회 선거, '시대를 이끄는 8천의 힘' 유하영·오승해 선거운동본부 공동정책 자료집 9쪽.

2) 유하영·오승해 선거운동본부 선거 공보물

그 때는 (여성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거는 내가 처음에 여성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여성운동이다 이러면 그런 꽃꽂이 가르쳐준다든지 소비자운동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두려워했어. 아니다 그런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여성운동도 너거랑 똑같은 운동이다. 그런걸 보여주려고 했지. 어떤 특화된 여성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운동 속에서 '너거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취급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보이고자 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처음엔 A언니랑 있으면서 같이 했던 건 위안부, 성상품화, 기지촌 조사를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아. 성상품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에 있는 기지촌 관련 심포지움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91년 첫 증언) 그 전에 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 걸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있었고. 맨 처음에 한건 성상품화에 대한, 다가가기에 아무래도 성상품화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선전을 했고. 자본주의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상품화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를 운동을 안 쳐줄까봐 민주화운동하면서 삭발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지 너거 운동 아니다. 그럴까봐. 우리 너거랑 다른 게 아니라 라는 걸 우리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게 많아서 같이 하면서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일각에서는 너는 왜 삭발하는데 또.. (가, 86학번)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민감했던 대학생으로서의 정의로움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성으로서 필연적 선택을 하게 된 '여학생운동'의 방식이었다고 여겨진다.

비정식서클이 아니라 학생회라는 정당한 기구로. (민주원동)

2) 대학 여성운동 주체의 형성

→ 여학생회도 등장

현재까지 대학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 서울 지역에서 등장한 '영 페미니스트' 그룹과 그 후신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부록으로 실린 '대학여성운동의 발자취'에서는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를 거쳐 90년대 말까지를 망라하여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기는 하나 서울의 2~3개 대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경미의 글은 부산지역을 다루고 있지만 부산의 대학에서 여성운동 경험을 가진 일부가 연구대상으로 참여했을 뿐이다³⁾.

이렇듯,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대학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어찌면 다른 누군가의 관심 꺼리의 축에도 들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지역에서 대학여성운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개되어 갔는가'를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2019년

3) 『80년대 부산지역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지식인 활동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주경미, 『여성연구논집』 제5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4

현재에도 부산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 분류되고 읽히는 뭇터가 속에서 각자의 처지와 환경을 기반으로 여성주의자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여성주체로서 활동하게 된 시초가 대학여성운동이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능성의 내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적 관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사실'로서 확고히 존재한다.

BRIDGE는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부산대의 여성주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여성운동의 대열에 접근하고 누구와 갈등하고 어떤 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여성주체로 형성되었는가를 처음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글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 자발적 개인들의 출현

80년 중반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출현하여 여성해방을 위한 여러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또 하나의 문화'로 대표되는 '독립적 여성운동'도 같은 시기에 출현하였다. 80년대 여성운동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 평우회'는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여성운동의 목적을 '여성해방'으로 분명히 제시하였고, 성차별과 여성억압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87년 부천시 성고문 규탄 활동과 6월 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족했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가 뒤를 이어 창립됐으며 지방에서도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여성 운동을 주도했다⁴⁾. 이러한 80년대 중반의 분위기가 대학을 다니던 젊은 여성들을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씨클은 주제 발표를 시키거든요, 주제 발표를 시키는데 주제를 그걸로 잡았어요, 여성운동.(중략)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제 발표를 했었는데 반응이 전부 웃음(웃음) 왜 이런 걸 들고 왔지? 이런 분위기, 주로 해방전후사 그런 이야기, 노동관련 주제였는데, 전부 눈은 동그랗게 뜨고 앉아가지고 질문도 없고, 이것도 운동과 뭔가 관련이 있나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텐데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나 84학번)

같은 과 86학번 중에 운동하는 여학생들이 제법 있었어요, 6명 정도, 처음에 86년 말쯤 87년 초쯤 친구 중 한 명이 우리가 여성운동에 관심을 가져보자, 각기 장은 달랐지, 그 중의 한 명이 우리를 가르쳐줄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개가 A 언니를 찾아가지고, 언니를 만나서 우릴 공부 시켜달라.. (가 86학번)

② 공동의 인식 전환

존재하는 체계로서 여학생부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적인 결정에 따랐던 사람,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없는 직함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사람, 여성문제를 알고 싶어서 알려줄 사람을

4) 여성학강의, 1991, 동녘

찾아 총학생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87년 총학생회 여학생부에서 모였다. 그렇게 개인들이 연결되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여성문제를 공부하고 활동을 이어 나가며 공동의 목표인 '총여학생회' 건설을 향해 나가게 된다.

이들은 활동하면서 여성문제를 더 공부하고 싶지만,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해소되지 않던 갈증은 계속되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 줄만한 곳을 찾아 서울까지 가서 여러 여성단체나 총여학생회도 방문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대에서 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고 공부를 하며 '여성문제'라는 것에 더욱 더 집중하게 되고 '여성학'이란 학문의 존재나, 단순히 '여성'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민은 그야말로 탐색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사유하였다.

여학생부라고 특별한 사업 없었고 그냥 같이 하는 팀으로 학내 민주화 사업단하고 6월 민주화 사업하고, 그 대신 학내 심포지움 같은 거 여성운동 관련. 그다음에 여성학 그다음에 했다. 여성운동의 그 때는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여성운동의 내용이 뭔가. 이 여성운동이라는 안에 뭘 도대체 담아야 되나. 이런 탐색 수준이었거든요. 탐색하기에 주로 여성운동사를 갖고 이론적 입장을 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중략)

부산지역 여성단체는 내용이나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올만한 게 없었지, 여학생회 준비하고 단대 여학생들 공부시킨다고 자료를 많이 찾고 했는데 그러면서 부산에 여성노동자회가 있구나 그런건 알았지만 교류는 없었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만한 자료는 없었지. 우리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여성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고 거기는 여성노동자 지원하고 그런 거였지. (다 85학번)

총학생회 여학생부에서 처음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여학생부 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부를 통해 여성해방의 목표로 더 다가가게 됐다. 그리고 점차 민주화운동에서 여성운동이 분리되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됐다. 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계급 안에서도 달리 대우 받는 현실을 인지하고 부족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다. 여성문제가 존재한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획득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단과대 선배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도 약간 생겼고, 그전에는 선배들을 아주 믿고 따르고 좋게 봤는데, 선배들이나 남자동기들도 어떻게 생각 하나면, 내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해의식이다. 너무 과민하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너무 과민하게 피해의식에 젖어서 문제제기를 한다. 우리 단과대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음담패설 같은 거 재밌게 하잖아. 내가 그런 거에 대해 인상을 썩그린다든지 이런 얘길 하면 그러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피해 의식에 젖어서 과민하게 한다. 그때 선배들이 옆에서 방석집이라고 하나 여자

나오는 술집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음담패설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웃고 동화돼서 안하면 피해의식에 젖은 하튼 그런. 그래서 같이 하고자 했던 친구들이 하나 하나 그냥 선배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냥 원래 총학 여학생부로 같이 가서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자 그렇게 됐는데 다 안 가고 끝까지 간건 나 혼자만, 나는 막 싸우면서 갔으니까. 내가 여성문제를 공부하면서 아 언제 그냥 내가 일학년 때 운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르고 그랬구나 여성문제를 공부하면서 한 단계, 내가 정말 이걸 알고는 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돼서 갔지 (가 86학번)

총여를 발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여성문제, 여성해방의 목표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당시 정서 속에서 여학생들의 정치의식의 각성과 정치참여를 위해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학생운동의 요람 속에서 탄생한 인사들이었다는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총여학생회 건설과 백래시

87년, 88년 독재타도와 사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투쟁 가운데 여학생들도 민주화 대열에 함께 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학생조직의 별도 건설은 여성문제의 깊은 이해라기보다 학생들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단위, 창구로 인식되어 큰 반발이나 반대의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총여 무용론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목적과 방향성 없는 자치조직 난립과 복지에만 매몰되는 사업 방식 등의 사례를 들며 총여 무용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1989년 3월 8일 1대 총여는 총학생회와 함께 출범식을 개최하고 학교 내 여학생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1대 총여 집행 체계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기획부장, 사회부장, 편집부장, 문화부장, 선전부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역대 총여 가운데 가장 규모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했다. 집행부 구성은 총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여학생들을 접촉해 같이 해보자 제안하고 그 제안이 수용되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성된 총여는 시작과 함께 살벌한 예산 분배의 다툼에 휩싸인다. 우여곡절 끝에 총여는 동아리연합회만큼의 예산은 확보를 하였고 전례가 없던 총여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말을 건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총여가 만들어질 때는 '한시적 침묵'으로 적극적 입장을 표하지 않던 이들 가운데 여러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고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받기보다 운동권 세력과 갈등하고 그들로부터 무시당했다.

그리고 91년, 총여가 발족되고 3년째 되던 해. 대의원대회에 '총여 폐지'안이 상정됐다. 한시적 침묵으로 총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했고, 활동을 시작한 총여를 방해하던 그들이 침묵을 깨고 2년간 활동의 결과로 총여가 필요치 않다며 폐지안을 내놓았다. '민족민주'운동이라고 불리던 대의가 존재하고 그 대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이들,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없던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던 이들에게 총여학생회는 그저 무가치하고 존재의 이유도 알 수 없던 '땃명'에 불과했다. 총학생회가 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는지 당시 기록을 못 찾고

ML과 함께 하다가 연립했는데 하극안에 쫓겨남.

오기. 정보로부터 배제되어서... (...)

관련자를 인터뷰 하지 못 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시의 백래시는 이미 80년대 말에 일어난 다른 대학의 총여학생회 건설 후 해소와 재건설로 이어지던 일련의 흐름⁵⁾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조직으로서 여학생회. 한 차례의 백래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 중심의 여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진다. 학생운동의 부흥기라는 시대적 흐름이 여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누그러뜨렸는 지도 모르겠다.

④ 총여 구성원의 분포

부산대에서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여학생운동'의 체계 속에서 저학년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두 번째는 학생운동은 했지만 여성문제에는 관심이 없던 상태로 학생회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에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 총여학생회 집행부나 대표자를 제안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2학년 때부터 공대여성문제연구회에 차출되거나 국문과 여학생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문제를 접하고 여성운동에 조금 먼저 안내된 사람들이었다. 물론 개인의 관심이 학생운동 주류 보다는 여성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성운동에 자발적 관심을 표하던 개인들이 학생운동 사회에서는 소수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단대 여학생부와 연계를 가지다가 단대 여학생부장직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류는 학생운동가로서 정체성이 더 강하지만 총여학생회 활동을 제안 받고 활동의 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총여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다. 이들은 여성문제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했으나 학생운동의 연장선으로서 인식하거나 생경한 무엇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총여학생회 활동의 중요한 구성원 이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공대여성문제연구회, 혹은 공대 여학생부로 지칭되는 일군의 사람들이다. 89년 1대 총여학생회 회장을 시작으로, 2대 부회장, 3대 회장, 4대 부회장, 5대 회장, 시간이 조금 흐른 10대 총여 회장까지 모두 공대 여학생부장 출신들이다. 더불어 총여학생회를 만들면서 과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각 단대 학생회의 여학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공대 여학생부는 98년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으며 단과대 전체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은 단대였던 자연대나 인문대 여학생부도 총여학생회 활동에 큰 역할을 차지했고 그 속에서 총여학생회를 구성했던 중요한 활동가들의 요람이었다. 또한 여성문제나 여성운동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여학생부의 역사성이 없던 단대의 여학생부장으로 돌발적 활동을 이어나갔다. 96년 법대나 97년 예술대 여학생부장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대학 반성폭력 운동, 인식의 전환

5) 「나는 페미니스트 이다」, 2000, 동녘

20여 년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이어가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과 만나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86년에서 87년에 학과 차원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단과대학 학생회와 함께했다고 하나, 부대신문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부산대의 첫 반성폭력 행동이었다.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서울대 신청휴 교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부산대에서도 교내 순환버스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총여학생회로 신고 되어 사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어 오른다.

순환버스가 생겼는데 버스에서 성추행 사건이, 어떤 남자가 여학생 치마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 여학생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총여에 온 거야. 근데 그 남학생이 누군지도 알겠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겠다고 그걸 내가 바로 숙보처럼 대자보를 온 학교에 붙였어. 사과해라면서, 그랬는데 그때 X선배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랬냐면 자보를 떼라는 거야. 그래 내가 자보를 왜 떼냐면서 따지니 "학교 위신 떨어 진다"는 거야. 내가 그 단어를 왜 안 잊냐 하면, 그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그 선배한테 미친 개 또라이 새끼 하면서 내가 완전히 총학 있잖아 그때 의자 돌려차고, 돈거 아니냐면서 지금 운동한다는 것들이 지금 뭐하는 거냐면서, 난동을 난동을 총학 가서, 그때 너무 용서가 안 되어서 너무 실망이라면서 내가 선배도 아니냐면서 개또라이 개새끼라면서 또 여학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총여가 그런 그렇게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미쳤다고 내갈아도 안 한다면서 그런데 했다는 건 이 여학우가 용기 낸 건데, 온 개지랄을 다하고 나왔지, 그리고 안 뺐지. (라, 91학번)

당시 대학 운동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일례다. 운동사회의 구성원이 나서서 반성폭력 활동을 막고자 했던 것은 대의와 결속을 무기로 비공개주의 뒤에 숨겼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에 대한 공포. 자신들에게까지 파급될 결과에 대한 우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왔던가에 대한 방증이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성폭력 사건 공개는 총여학생회로 운동사회 내부 성폭력 사건의 제보를 촉발시켰다. 운동사회 내부 성폭력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편한 주제였고 금기된 단어였다. 당시 적극적으로 운동사회의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다'는 "매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압박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운동 사회를 떠나더라도 진실을 말한 사람들 믿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공개하려고 10여건의 성폭력 사건의 증거와 증인들을 수집하던 중 공안기관이 '조직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감지에 따라 학생운동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문서들을 불태워야 했고 성폭력 사건 자료들도 조직의 안전을 위해 재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95년 1월 '부산대학교 자주대오 사건'이 터져

93, 94년 학생회 활동가 15명이 구속되었는데 운동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성폭력도 같이 덮여졌다.

90년대 중후반은 학내 성폭력 규제학칙 제정과 첫 가해자 실명공개로 반성폭력 운동이 부산대학교 여성운동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 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97년 교양수업 강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을 총여학생회에서 공개하고 집단 수업 거부로 학생들을 조직하고 학교본부를 압박하여 성폭력 가해 강사는 강단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대중적 흐름이 생겨났다. 더 이상 성폭력은 개인이 숨기고 전전긍긍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위계화 된 성별관계와 비틀린 성문화가 양산하는 사회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학내 담론이 형성되어 갔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학칙'의 필요성으로 발전하였고, 95년 학내 성폭력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6년, 97년, 98년 총여학생회 선거를 통해 '성폭력규제학칙 제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시기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이라는 이슈는 당시 부산경남여대생대표자협의회의 핵심 사업으로서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대, 경성대 등 부산에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동시대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⁶⁾

특히 99년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는 부산대 여성운동의 분기점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2000년엔 총여학생회에 10건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고 공개되었으며 폭발적 반성폭력 담론 형성으로 부산대에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류가 생성되었다. 여성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마녀들의 카니발' 행사로 등장한 그룹이 생겨났으며 다음해 이들은 '여성주의 웹진 월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학생운동 조직 내부에서 총여학생회나 여성그룹 등은 위계화된 서열의 하층위로 인식되던 목계를 찢으며 운동 사회의 질서와 여성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재정립하려 시도했다.

3. 결별 그리고 새로운 여성공동체의 탄생

부산대학교의 여성주체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험로였다. 90년대 한국은 페미니즘이 부흥했던 시대라고 하지만 동시대 진보성을 지닌 대학에서도 여성운동은 내외부와 항시 갈등했다. '내부'라고 인식했던 '학생운동'과 '부문운동'으로서의 위치성에서 이탈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부산이란 지역이 가진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의식의 후진성 등으로 우호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에서 특이한 소수가 선택하는 까칠하고 예민한 여자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래도 끊임없이 자연발화하며 내외부의 가부장성과 싸우던 여학생들이 2002년 각자의 조직과 관계를 재정립하며 여성주의로 모두 합류하게 됐다. 치열한 계파 경쟁 구도에 놓여 있던 학생운동 그룹 소속의 여학생운동가가 아닌, 여성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게 된 여성주의자로서 사유하게 되면서 당연하듯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6) 부대신문, 1997. 3. 31, 부경여대협 대의원 대회-성모순척결 중점사업

총여가 없었던 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총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무엇보다도 총여를 건설하는 게 최우선이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변화했으니까, 2000년도 변했지만 2001년은 더 많이 변화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월장친구들이 또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월장과 함께 연합선본을 꾸려보자 라는 제안서를 먼저 보냈고, 월장에서도 자기들도 선거를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면서 "총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마, 97학번)

월장 멤버들이 모두 여성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총여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자주적 총여가 한총련의 부문운동으로서만 활동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총여 멤버들도 운동권 조직 안에서 여성으로서 목소리 내기 위해 분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성'으로 뭉쳐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함께 총여 선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바, 98학번)

특히 이들은 모두 운동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접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겪었고 조직 내 여성운동의 한계를 직시하며 조직과 결별 혹은 독립적 단위로서 스스로를 규정한 인식의 변화로 운동권보다는 여성운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 강화로 이어졌다. '여성'이란 이름으로 뭉친 이들은 한 해 전에만 해도 "독자적 여성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총여학생회를 거부하라"던 '안티총여'운동으로 갈등 했던 관계였다.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여성공동체'가 탄생 됐다. 이들은 기존 대학 운동사회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으며 거시적 담론, 당위성과 책무감에 찌든 운동가가 아닌 소소하고 재미있는 행위로서 총여학생회 활동이 이어지고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갔다.

요 팀들은 학생조직으로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특이한 개별의 네트워크였고 활동이었는데 (중략) 옛날 말로 NL 활동 했던 분도 있고 PD활동 했던 분도 있고 '다함께' 활동한 사람도 있고 신문사 사람도 있고, 그 각각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다 같이 된 거예요. (중략) 다른데 가면은 통일 관련된 주제는 아주 부차적인 걸로 천다 이런 게 아니었고, 너 그거 관심 있어? 그래 그것도 좋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이런 형태들이 포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뭔가 뿌리가 없는 근본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실제로 허스토리가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고 경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당시의 자기 중요한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거죠. 뭔가 그 학습되었거나 라인이 있거나 강력한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트워크 너무나 단단한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면 그 네트워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무슨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무슨 아무 근본이 없어, 내가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일학년도 있었고 사학년

7) 99년 3월 보궐로 총여학생회 선거를 하였으나, 하루 동안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하여 투표 무산으로 99년 총여학생회는 존재 하지 못했다.

오학년도 있었고, 학년도 섞여가지고 근본도 없고 경계도 없었는데 그런 집단이었다 보니
까 지금 대중적인 시선 혹은 하고 싶은 일로 구성했던 거 같아서 재밌었던 거 같아요. (사,
98학번)

위계화 된 질서를 찢으며 새롭게 탄생했던 여성공동체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 했다. 여전히 총
여학생회라는 독립된 여학생 자치 기구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알려야만 존속될 수 있었으며
“남성 기득권을 공격하는 활동을 하면 어김없이 협박과 위협이 따라왔다”는 외부적 마찰과 지속
적으로 반복되는 소수자로서 여성주체들이 갖게 되는 피로도로 인해 이들은 자체적으로 총여학생
회라는 학생회 시스템이 아닌 다른 틀로서 대학여성운동이 변모돼야한다는 전망을 남겨두며 대학
을 졸업하게 됐다.

총여 인원이 적은 데 비해 부산대 전체 캠퍼스를 다 커버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무척 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멤버들이 매일 밤늦게 까지 고생을 했고, 특히 선거 기간에
선거함 관리를 다 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총여라는 형식이 대학
내 여성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멤버들끼리 공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 98학번)

2002년 새로운 여성공동체로서 총여는 여학생잡지 'herstory'를 창간하고 발간하였는데 이 여학
생 잡지를 총여 이후 대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망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의원 대회를 거쳐
정식 기구화하여 학내 여성주의 언론으로서 기능하고자 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이 시도는 좌절
되었다.

마치며

1985년부터 2005까지, 부산대학교 여성운동의 역사를 복원하여 기록하였다. 한 번도 주목 받지
못 했고 관심 받지 못 했으며 어떨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학생운동'의 역사. 한 대학
에서 발생한 여성운동의 시작과 전개, 종결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는데 가장 큰의의가 있다. 기록
하는데 있어서 한차례의 분서갱유로 과거 자료가 거의 남지 않았고, 부대신문에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더 있다. 또한 총여 활동을 했던 구성원들이 많았으나 심층면접자가 충분치 않은 점이나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전의 과거를 떠올렸다는 점이 기록에 있어 한계로 작용했다.

1년간 이어진 기록물 분석과 심층면접으로 거대담론 아래서 이젠 이래야한다는 당위론적 사고
에 익숙했고, '품성론' 등으로 개인의 활동양식까지 통제했던 시대를 통과하며 상처 입고 아파한
이들이 많음을 확인했다. 헌신하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자책하거나 주변의 시선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이 작업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역사를 복원하며 어느 시대나 여성주의를 향한 자발적인 개인들이 출현해왔다는 발견은

여학생운동 또한 여성운동으로 치환돼야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부산대에서 여성운동을 경험한 이
들에게 여성운동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됐다. 기존 세
계가 완전히 부서지며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만든, 대학 여성운동의 힘을 확인하였다. 여성운
동을 만나고 그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던 언니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주의자로 살아
가고 있으며 과거 우리의 활동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해주
었다.

BRIDGE는 오늘의 대학 여성운동 활동가들에게 계승되지 못한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있는 그
대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과거 대학여성운동이 사실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과
거에 대한 평가의 말은 아껴두었다. 이 기록의 쓰임과 효용은 오늘의 세대에게 맡긴다.

Ⅱ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Ⅱ

주제 발표 2.

총여학생회 이후 전환에 대한 고민⁸⁾

- 성공회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2000년대 초반에 졸업대학생,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대학

동희(동글)(페미니즘 교육 플랫폼 비두)⁹⁾

1. 성공회대학교의 여성운동의 계보

많은 사람들이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와 활동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읽지 못한 채 '젠더갈등', '존폐의 위기' 등의 언어로 축소/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대학 내 페미니스트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페미니즘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성공회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성공회대학교 역시 많은 페미니즘 활동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해체되고, 다른 형태로 분절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각각을 대상으로 학내 페미니즘 운동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인식개선을, 고립된 페미니즘 활동가들에게는 위로와 역사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성공회대학교의 경우 90년대에 처음 총여학생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가 끊어져 정확한 시기 추정 불가) 이후 오랜 공백의 기간을 거쳐서 2003년 12대 총여학생회가 다시 서지만 2005년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맥이 끊기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회대학교 안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주의 거대 모임 <모의작당>,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오버나이트> 등의 학회와 모임들로 대학 내 여성운동은 계속해서 그 맥을 이어 갔다. 이후 2006년 몇 명의 여성주의 주체들은 <여성주의 저널 앤>을 창간한다. 앤은 초기부터 학교, 교수, 학우들에게 약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으며 창립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독자모임을 조직하며 성공회대학교 안의 더 많은 주체들에게 여성주의의 문제제기를 던지고 토론을 나눴다. 앤 또한 머지않아 활동을 정리했지만, 성공회대의 여성주의는 이후에도 <썬컷>과 같은 학회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

8) 본 글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 내 페미니즘운동 잇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9)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페미니즘 활동가들이 대학 이후 활동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2018년 5월 만든 단체이다.

2010년 중반, 성공회대학교에는 여성주의를 포함한 많은 인권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생겨난다. 밀양, 청도에 대한 연대 속 환경운동 흐름, 알바노동자 학내 미화방호 노동자에 대한 노동운동의 흐름, 각 학부별로 조직되는 여성주의 소모임과 성공회대에 새롭게 등장한 퀴어 동아리와 함께 성공회대학교가 가진 논의는 확장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익명성에 기반한 혐오발언이 시작된다.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의 이슈에 분명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에 각각 퍼져있는 이슈들에 대한 네트워킹, 학내 실태조사, 더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권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대의 학생자치운동은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부학생회들은, 한 해 동안 운영되고 그 다음해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성공회대의 학생자치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주의 및 인권 운동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출범의 맥락

가.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소개

성공회대 인권위원회는 2016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학내 인권친화적 공동체 형성과 학생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목적을 기반으로 인권위원회는 크게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종합적인 학내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인권위는 노동영화제, 채식사업, 장애인식 캠페인 등 인권에 관한 가능한 모든 의제를 포괄한다. 두 번째, 독립기구로서 다른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총학생회 산하 또는 과학생회 인권국 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전담하여 다루는 독립적 기구로서 일을 진행한다. 세 번째, 준사법기구로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중재 및 시정 권고할 수 있는 권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인권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

1) 지난 10여년간 총여학생회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학내에 서지 않음.

총여학생회 설립을 추진했던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총여학생회가 서지 않았고 당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기는 했지만 어떠한 자료나 내부 학칙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총여학생회를 재건설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이분법적 젠더 관점을 넘어선 학내 자치기구의 필요성.

당시에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여성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같이 갈 것인가(총여) 사회적 분란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가 (성평등위원회) 둘째, 지정성별 중심의 논의였다. 첫 번째의 경우 여성주의의 후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성평등'이 한국 내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경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기술적 중립을 이야기했던 경우

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에는 막 메갈리아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백래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했지만 지금과 같이 여성주의가 의제화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지만 당시 배경에서는 꼭 총여학생회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유연한 생각이 가능했고 포괄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두 번째의 경우를 당시 많이 논의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총여는 직선제 선출이며, 선거권자는 여학생이다. 총여가 학생들 중 여성의 인권 신장 및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스젠더(cisgender: 사회적/생물학적 성별이 일치)의 경우이며, 트랜스젠더(transgender: 사회적/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들을 포함한 논의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션을 하지 않은 경우 MTF 트랜스젠더는 총여학생회에 들어올 수 있으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FTM 트랜스젠더는 총여학생회의 구성원이어도 되나, 문제다. 그렇지 않을 때 총여학생회는 생물학적 성별위주의 구성을 가졌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성(gender, sex)을 넘어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구의 필요성

여성주의가 '개인의 주체됨'을 주장하는 학문이며, 학문의 확장이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여성주의가 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방향의 고민들이 이곳에 실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기구가 필요했다.

3. 인권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당면한/했던 과제들.

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

2016년 당시 학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되고, 준사법기구의 권한을 가진 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상황 속에서 이후 조사와 징계, 사후 관리까지 자치기구의 역량이자 담당이 되었다. 그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온라인 상에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겪은 문제들과 당시의 답변을 정리하고자 한다. 회칙상에는 인권위의 준사법적기구의 특징이 기입되어 있었지만, 인권위원회의 구성원 각각의 감수성, 사건 해결 경험 유무, 활동에 대한 이해 모두 달라 '조사위원'으로서의 준비도 또한 모두 달랐다. 구성원 대부분이 성폭력에 대한 입장은 있었지만, 이를 조직적 입장으로 묶어낸다는 것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위축되기도 했다. 일차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인권과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전문성이 없는', 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단,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이 있었던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1년 주기의 학생회 특성상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학생자치영역에서의 책임 범위는 무한정으로 커져갔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는 활동에 임함에 있어 쉽게 소모되고 방향을 잃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전문성을 말했던 것이었을까? 이는 '인권'과 '여성주의'를 이야기함에 있어 힘을 뺏고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학생' 신분으로서 '조언'과 '비판'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너네가 뭔데'라는 공격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일종의 자격증이고, 그것을 증명했다면 달라졌을까? 이것들을 제시했다면 정말로 더이상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학생회 조직에게 있어 중요한 지점일까? 인권위원회에서 '준사법기구'로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건 진정을 받았던 것은 물론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성폭력사건 해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모두 함께 합의해갔다. 보수적이지 않게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고, 상황적 맥락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고민할 새도 없이 소진됐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음 대를 준비할 힘을 잃게 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며 공론장을 떠나갔다.

학생회는 1년마다 바뀌는 조직이고 경험이 축적될 수 없는 구조.

나. 해결사 조직으로서의 위치

성폭력 사건 조사위가 꾸려질 때, 혐오발언 문제가 대두될 때, 인권위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로 호명된다. 또한 많은 경우 '답'을 내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인권위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내 인권위의 위치는 '문제 해결사'인가. 둘째, 인권 담론 속에 단일한 답이 존재하는가. 첫 번째 고민의 경우 인권위의 위치가 '문제 해결'로 위치한 데에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더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권위의 경우 다른 모든 학내 기구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조사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해나갔을 뿐이다. 또한, 계속해서 고민하며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실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즉, 인권위가 특정 문제해결에 더 막힘이 없었다면, 그는 그만한 고민의 산물이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인권위가 문제 상황에 대해 게을러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이기도 하고, 실제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 자치규약을 발간하는 등 학생자치기구가 인권 친화적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과 참고할만한 자료들을 모아보며 되도록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결사'로써 타 학생자치기구들과의 위치가 괴리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이는 두 번째 문제제기와 어느정도 연결된다.

인권 담론 속에 단일한 답이 존재한다는 상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논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모든 담론이 그렇듯 명확한 '답'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는 한 순간, 한 시점에만 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논의에서 각각의 특정한 상황 속, 어떤 주체가, 어떤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인권위원회는 많은 상황 속에서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기도, 해주지 않기도, 혹은 상황마다 다른 답을 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다만 요구받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답이 논의될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답을 내놓아도 한 쪽에서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다.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선제 선거가 아니라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간접 선거를 통해 인준된다. 지금의 인권위 회칙 안에서 간선제 관련 규정은 간소하고 제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인권위가 초기에 세워질 때 간선제를 과도기적 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총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생기구가 권력이었고 투표함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로 당선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초기에 간선제를 통해서 인권위원회가 무슨 조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 알리고 그 이후에 직선제로의 전환을 고민했다. 그러나 간선제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것을 빌미로 인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간선제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다른 학생기구와의 동등한 관계설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가? 또는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될 때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권위의 의제를 공유하고 담론을 만들 수 있는 홍보기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간선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선제를 정당한 선거절차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인권위원회 자체가 정당성 없는 조직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당성이라는 것이 꼭 직선제를 통해서만 획득되어 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성공회대에
가소 제도
있다”
라는 이야기
학생회
취임식
자율한 학생

이들에 따르면 간선제의 문제점은 학생대표자들이 끼리끼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끼리끼리 문화의 구성원들이라고 추측되는 이들은 페미니스트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빨갱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다수'의 사람을 대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인권위는 굴절된 대표성 안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간선제에 비해 정당성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직선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조직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간선제/직선제 이분법 구조에서 간선제가 직선제 아님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문제이다. 이 구조 안에서는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인권위가 학생회비를 받는 것도, 장학금을 받는 것도 모두 공정하지 못하게 인식 될 수밖에 없다. 즉, 인권위의 자치기구로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안에서의 투표가 과연 '민주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남아있다. 인권위가 제시하는 관점과 그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인권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정당'한가. 공론장 없는 투표행위는 기존의 권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논의를 만들어내갈 수 없다. 문제가 터지면 모두가 찾지만 해결의 주체로는 신뢰할 수 없는 모순적인 시선 사이에 인권위는 놓여져 있다. 이는 인권위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위에 서 있는 조직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4. 결론

가. 자치기구 역량의 진단/객관화

우리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학생사회'는 '공동의 합의'가 아닌 '의지가 있는 개인'들에게 기대어 있다. 이는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학생자치에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맥락과는 별개로, 학생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의지 있는 개인들의 결사체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면밀한 진단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야한다', '연대해야 한다'와 같은 기존의 학생자치의 언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그 속에 있는 개개인들은 당위 안에서 소모되기 쉽다.

나. 인권위원회가 택했던 방식

이때 인권위원회가 택했던 방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놓자'였다. 학생조직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수많은 책임들과 더불어 학생기구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고민의 기록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학생자치기구들의 인권친화적 사업집행과 평가, 성폭력 사건 해결 절차 등 당시 고민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잇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런 맥락에서 인권 자치규약을 만들었다. 지금 활동의 고민과 어려움을 기록으로 풀어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했다. 사람이 바뀌고 활동 단위들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이었다. 모든 조직의 자치역량과 감수성은 각기 다르다. 감수성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지가 주된 고민 지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 기반, 무너지지 않는 선 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점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민을 쌓아갈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기도 했다.

다. 다양한 운동 방식을 택할 필요성

“꼭 '학생기구'의 형태여야만 할까?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면 어떨까? '가장 큰 역할을 자발적 결사체들을 지원하고 활동할 풀을 형성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동의 흐름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자치활동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다양한 운동 방식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지지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주의 조직이 사라지고, 흩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채널로 여성주의는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다양한 실험의 장을 만들고 네트워킹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뿐 아니라, 운동 안의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의 영역과 그 '결'에서 조금씩 뻗어나가고 발전해나가는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 자신을 비롯한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힘과 믿음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Ⅱ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Ⅱ

주제 발표 3.

'학생회'로서 총여와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

황주영(서울시립대학교)

1. 들어가며

이 글은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백래시로 읽는 관점에서 잠시 벗어난다. 백래시라는 접근법이 적합한 분석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라는 특정한 공간을 사례로 삼으면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이 제시하는 분석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페미니스트(이하 영페미)'로 불리는 199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포착하고 기억하는 데 실패하는 주변부의 관점이다. 이 관점 혹은 이야기는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을 부흥과 침체, 리부트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쉽게 누락되곤 한다. 이 분석틀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선 이것이 시립대와 같은 주변화된 대학들의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페미'에 대한 다소 과장된 기억과 보편주의적 평가에 깔려 있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계급차이에 대한 맹목이 이후 페미니즘의 침체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의 맹목이 현재의 십대, 이십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에서 변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분석틀은 2000년대 이후 학생회와 자치활동의 의미의 변화라는 맥락이다. 총여를 비롯한 대학 내 페미니스트 조직의 침체는 학생회와 학생 자치활동 일반의 침체와 궤를 같이 한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총여 폐지 '주장'은 분명히 백래시 또는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역차별 주장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총여와 페미니스트 조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 실제 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오히려 대학에서 학생회와 학생 자치활동의 위상이 약해지거나 그 의미가 전환되는 맥락이다. 나는 이 위상과 의미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핵심은 총여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면 현재 대학사회에서 학생회, 자치활동, 정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그런 조건에서 총여 활동을 한다는 것이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에서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석틀은 사회, 경제, 문화 자원의 불평등이라는 고리를 통해 맞물리게 된다. 나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유학 온 가난한 학생으로서, 1990년대 '영페미'라는 호명에서 누락된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으며 빈곤한 학생이 많은 공간, 국립공립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시립대에서, 당시 문화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페미니즘 운동이 어떤 소

외와 한계를 구성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어떤 의제와 접근방법이 조명되어야 하는지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신촌, 관악

2. '영페미'라는 이름의 허구 또는 외부

지금부터 기술하는 나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한다. 나는 이것을 함부로 일반화할 수 없다. 시립대 총여가 어쨌든 지역적으로 특혜를 받는 'in 서울' 대학의 공간이었다는 점,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시립대 총여 활동가들과 충분히 공유하면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쓰는 내내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영페미'의 역사를 서술하는 많은 글과 인터뷰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그 기술에서 배제된 나의 경험은 왜 이토록 조심스러워야 하는가? 나는 나의 경험이 주관적인 것이어서 전체를 보여줄 수 없지만, 전체인 나 하는 다른 경험들에 대해 재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0년대 대학에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은 '영페미'로 통칭되곤 한다. 당시 활동가들은 특히 '반성폭력학칙제정'을 비롯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공동 사업을 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영페미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운동'이었다. 가부장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언어와 관계 방식을 바꾸고, 축제나 문화제, 예술작업을 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사용했다. 자치 언론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 웹진 등을 만들어 일을 도모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페미니즘 학습과 운동을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투여, 활동의 과정과 결과의 기록, 언론과 학자의 주목, 전문가 및 규모 있는 단체와의 연대 등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이해하는 영페미는 사실 (신촌)과 (관악)의 영페미이다. 동시대, 동세대의 여러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을 영페미로 정체화하지 않았다. 영페미라는 이름은 마치 보편적인 이름표인 것 같지만, 실은 대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한 몇 군데 대학의 페미니스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영페미로 대표되고 재현되는 90년대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의제와 전략, 토론의 쟁점들은 주로 이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구성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반성폭력학칙제정 운동은 전국적인 의제였다. 서울 경인 지역 대학 20여개의 여성운동단체들은 97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시립대도 여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운동의 가장 구체적인 목표는 학내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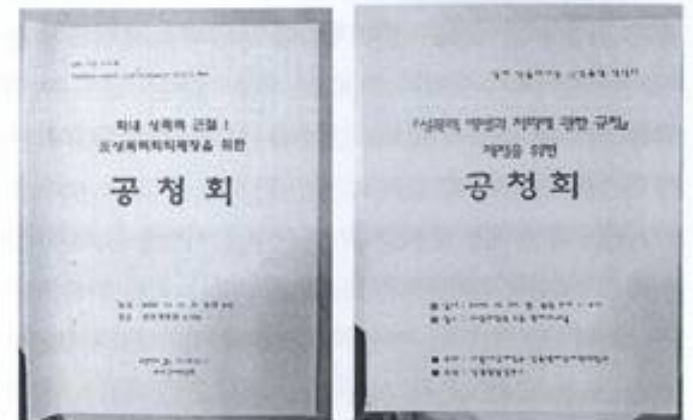


그림 19 반성폭력학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0, 2001

을 때 사건 접수, 피해자 보호, 심리상담, 가해자 처벌 등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이 업무 전반의 지침이 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시립대는 1년만인 98년 9월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총여의 요구안이 거의 반영되어 교수, 교직원, 학생,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비율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칙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몇몇 대학이 2000년, 2001년 경 학칙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고 비슷한 시기에 학칙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 대학에서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각 대학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서인지 99년과 2000년 연대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는 대학의 숫자는 4-5개로 줄어있었다. 시립대 역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교측이 학칙 제정을 두어 번 거부하기는 했지만, 활동가들의 예상과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관료화된 보직교수가 자신의 임기동안 다른 대학보다 뭔가를 먼저 시작했다는 치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교수와 교직원이 가해자일 경우였다. 시립대 교수와 일부 교직원은 시립대와 달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시립대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징계 결정이 독립성과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대목이다. 시립대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연대회의>에서 도움을 받기는 거의 어려웠다. <연대회의>의 논의 안건들이 시립대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립대 활동가들은 활동가가 매우 소수인 악조건에서 계속 이 회의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화운동과 관련된다. 각 대학 총여에서는 매년 여학생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사업을 벌였다. 또한 몇몇 대학에는 여성주의 자치 언론이 잡지를 발행했다. 그밖에도 일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영페미를 특징짓는 것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런 문화운동은 그야말로 각 대학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가진 경제적 자본과 문화자본의 격차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령 시립대 총여가 기관지를 발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의 상가를 돌아다니며 몇 만 원짜리 후원을 요청할 때, 연세대 자치 언론 '두입술'에는 대기업의 광고가 실렸다. 페미니스트 대학 자치 언론이 대기업 광고를 실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돈의 차이는 시립대 동네 인쇄소에서 찍은 흑백의 총여 기관지와 디자인과 편집을 맡아 해주는 기획사에서 인쇄한 세련된 컬러 잡지의 차이로 나타났다. 2000년 가을 우리가 음료수 배달용 박스를 뒤집어 놓고 광목천을 씌운 간이 무대에 한 영에 씨를 세워 몇 번이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연세대 총여는 당시 최고의 여성 뮤지션들을 대거 섭외해 '여악여락'이라는 콘서트를 열었다.

그 차이는 빈부의 차이이며, 서울과 지역 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화자본의 차이이고, 소위 명문대와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관심의 투여량의 차이.



그림 20 '여성누리제', 2000. 플라스틱 박스를 연결해 만든 무대 위에서 가수 한영애의 공연. 당시 이를 본 한 여성학 강사는 '저 사람도 자기가 설 무대가 별로 없다는 걸 아는 거지'라고 말했다.

무늬플라스틱 박스를 일체에서 빌려서
앞어동고 천을 깔아서 사용

누적된 역사와 역량의 차이이다. 타대학 페미니스트들과의 회의나 토론, 공동사업의 장에서 그런 불평등은 아무렇지 않게 전사되면서도 진지한 고려의 대상으로서는 완전히 은폐되었다. 비신촌, 비서울대, 비인서울 대학의 페미니스트들은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 '명문대' 중심주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페미'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의 주제가 된 적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혹은 이 차이가 쉽게 은폐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여러 시립대 활동가들은) 스스로를 영페미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영페미로 소환된다. 하지만 결국 '영페미의 역사는 어떤 영페미의 역사인가?'라는 질문이 언제나 소거됨으로써, 우리는 대체로 그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다.

이 배제와 누락은 단지 '우리의 활동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제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실은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던 어떤 여학생들을 총여가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계급차이에 대한 맹목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여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시립대 총여 고유의 의제와 관점, 운동의 방식을 발굴하는 데 다소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98년 14대 총여는 여학생 취업 문제로 내세웠다. 또한 학내 보육원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여교수 비율 제고, 여학생 취업 문제 뒷받침 등의 정책들과 연동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을 포함한 교내 여성구성원 전체를 고



그림 21.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 방안" 토론회 자료집과 "여대생을 위한 구직수첩", 2000.

려한 정책이기도 했다. 15대에서도 첫 번째 정책이 여학생 취업과 관련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2000년 16대 총여는 전국 여성노동조합,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주관한 "대졸여성실업 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자료집을 만들었다. 또한 상기 단위들과 동국대, 배재대, 성결대, 한세대가 함께 <여대생을 위한 구직수첩>을 발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¹⁰⁾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문화운동의 흐름을 따라가기 바빴고, 시립대 여학생들의 주된 문제인 빈곤, 노동, 경제에 관한 고민을 중심에 놓고 전체 그림을 짜는 데 실패했다. 가령 우리들은 좀 더 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와 연결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에 관한 우리의 논의들은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더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 저렴한 자취방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일터와 집에서 마주하는 성폭력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성폭력 근절이라는 의제를 공유하면서도 '저소득층 여학

10) <연대회의>나 여러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비해, 여성노동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저조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여성노동자들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되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가거나 값싼 대체 노동력으로 취급되던 시기임에도 이런 문제가 주요 공동 의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이 두 사업은 아주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신촌과 관악의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꽤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

생'이기 때문에 겪는 성폭력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했다. 당시의 문화운동들은 가부장제의 일상적 언어와 사고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소득층의 여학생들이 처한 성차별적인 물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어야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를 준. 그래서 우리가 '대표'한다고 믿었던 '여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시립대 총여가 시립대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활동보다 특정 집단의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의제와 운동 방식을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 아닐까? 나는 이런 실패 혹은 과오가 시립대 총여가 문을 닫게 된 여러 원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대의 기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요청하는 유권자는 없을 것이니 말이다.

3. '학생회'의 의미 변화

그러나 이것이 총여 건설 중단에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다른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는 학생회 자체의 의미와 위상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대학에서 페미니즘이 부흥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학생회와 학생자치 활동의 의미의 변화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1)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대학의 변화

내가 대학에 입학했던 때는 IMF 직후로, 이것이 대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작지 않았다. 냉전 종식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이라는 구심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8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호황 속에서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학 내 민중문화운동은 점차 사그라졌다. 90년대 초중반에 십대를 보낸 이들은 이미 자신을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인식했고, 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대학에서 민중문화의 생산이나 자치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탈정치화도 가속화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맞닥뜨린 IMF 경제위기는 결정타가 됐다. 졸업 후 취업이 당연하지 않게 된 학생들은 공무원 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고, 실업의 불안은 학생들이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대학에서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고 규모가 크며 사회, 경제, 문화적 자본이 탄탄한 서울소재의 이른바 명문대에 비해, 지방대학이나 서울소재 소규모 대학에서 변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에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 시립대 재학 중에 장학금 한 번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혜율이 높았고, 등록금이 백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하거나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다. 청년실업률이 전에 없이 급락하던 시기. 이미 저소득층이었거나 갑자기 저소득층이 된 대학생들은 대학 내에서의 자치활동이나 정치활동, 인문사회학에 대한 탐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위기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라는 조건 안에서 신분과 직업의 세습을 가속화한 것 같다. 경제 위기는 사회-경제-문화적 자원의 격차로 인해, 소위 명문대 졸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신

분상승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했다. 시립대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이 많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들은 충분한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나는 이런 차이가 대학 내 자치활동과 학생회 활동이 더 오래 유지되는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회과학 동아리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고, 주식을 연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역시 다른 대학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됐다. 시간이 더 지나 IMF의 그늘에서는 벗어났으나 청년실업 만성화가 기정사실이 되자, 등록금 10만 원 인상에도 대학본부를 점거하던 학생들은 돈을 더 낼 테니 가난한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경선을 치르던 총학생회 선거는 후보도 겨우 내놓는 지경이 되었고, 단과대 학생회들 중 일부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2) 학생회는 고객센터¹¹⁾

시립대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여학생들이 힘을 모아 맞았기 때문도 아니고, 다수가 총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도 아니다. 다수가 학생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덕에 총여학생회는 어부지리로 살아남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이 무관심으로 인해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무관심 덕에 조직표에 계속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일련의 총여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하다면서 왜 후보도 못 내?'라고 반문한다. 나는 그 주요한 원인이 우선 학생회와 대학 내 자치활동의 의미와 위상의 변화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회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 자치기구이자 대의민주주의 의사결정기구이다. 선거를 통해 학생대표로 선출된 임원은 공공성과 대표성을 갖게 되며, 이 힘을 가지고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상하고 필요하면 싸운다. 학생들이 모아준 학생회비를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꾸리고,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롯해 대학생활 전반에 관련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 이런 일들이 단지 학생 복지의 문제만은 아닌데, 그 이유는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교수, 교직원, 학생 간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 집단과 (특히 비정규직) 직원 집단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권력을 지닌 교수 및 고위직 결정권자 집단과 수시로 대립한다.

과거에는 이 대립이 너무나 확실했다. 학생의 '이해'와 '요구' 역시 매우 분명했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지식인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에 책임을 느끼던 시절에, 학생회의 역할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는 데 있었다. 민주화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직결되므로, 대학의 학생회가 민주화 운동에 나서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문민정부

11) 1998년 시립대 총여학생회장으로 활동한 김미선(활동명 로바)이 당시 학생회의 변화를 '동사무소 학생회'라고 진단한 것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수립을 통해 민주화의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였고, 소비자본주의의 물결과 차례로 밀려온 IMF는 대학생의 의미와 위치를 바꾸어 놓았으며, 대학의 문화 역시 영향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는 시대에 대학생은 특별히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게 되었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교육은 좋은 직장에 원서를 넣기 위한 자격증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생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바빠서가 아니다. 이 무관심은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화되고 분산된 시점에서, 학생회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민족통일운동은 더 이상 학생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니게 되었지만,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장한 학생회 간부들은 이에 부응하기를 거부했다. 사실 이들 중 대다수가 계속해서 학생회를 '잡으려고' 한 것은 일종의 권력 기구를 통해 자기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었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의 중요성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다. 학생회는 공신력과 재정이 확보되는 중요한 권력 집단이며, 이 돈과 발언권, 결정권은 운동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원이었다. 물론 대학 내 운동권은 대학 바깥의 다른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학생회는 사회운동을 지속할 인물들을 양성하는 인턴십 과정이기도 했다.

운동권 학생회가 지체되어 있는 한편, 운동사회 자체도 다변화되고 있었다.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은 '부문운동'으로 폄하되고 운동 조직의 힘을 분산시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비난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대학이 학문과 생활, 운동의 공동체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완전히 재정의 되자, 정치 활동은 대학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었고, '종교' 이야기만큼이나 금기시 된다. 정치나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 바깥에서 나름의 준거 집단을 찾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는 주민센터나 고객센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간혹 학생회가 일을 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요구사항들 중 대부분은 대학본부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시립대에서 대부분의 학생회는 불필요해진 것처럼 보인다.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뽑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대학당국과 학생회 혹은 학생의 관계도 변화해, 이해관계가 대립하기보다는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철옹성 같은 학벌 사회에서, 대학순위 목록에서 조금이라도 상위에 랭크되려는 목표와 지향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학문과 생활, 운동의 공동체로서 대학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방식으로 스펙관리를 뒷받침하는 기관의 소비자다. 이 소비자 의식은 학생회와 회원으로서의 학생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4. '학생회'로서 총여의 특수성

1) 총여의 목적

학생회 위상의 변화는 학생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학생운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기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하에서, 좌파도 우파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고,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거나 아예 정치적 입장이 없는 이가 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여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총여는 여학생의 대표기구로서, 그 목적 자체가 학내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켜 여학생의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총여의 활동이 여성의 권리, 성평등, 가부장제의 철폐, 남성중심적 문화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총여의 활동은 페미니즘 운동과 분리되지 않는다.

물론 꾸준히 비페미니즘적 혹은 반페미니즘적 입장을 지닌 이들이 총여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총여의 재정과 공신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만일 페미니즘을 근간으로 삼지 않는 총여라면, 굳이 총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총학이 이미 성별과 무관하게 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총여가 필요성은 바로 그러한 중립성 또는 보편성 주장이 허구라는 데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중립성과 보편성은 늘 여성과 여성적인 것의 폄훼와 제거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총여의 이런 특성은 대학생들이 학생회를 고객센터로 간주하는 맥락에서는 더욱 약한 고리가 된다. 여학생 복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여학생 쉼터는 단순한 휴게실이 아니다. 쉼터는 외모 평가,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음담패설, 맨스플레인으로부터의 피난처다. 총여가 여학생 복지 정책으로 쉼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회를 '고객센터'로 보면 여학생 쉼터는 역차별로 생각된다. 쉼터가 대학이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하는 휴게공간으로 정의되는 순간, 총여의 특수성과 필요성이 소거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라는 총여의 존립근거에 대한 물이해로 인해 총여와 총여의 활동은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집단의 이기적인 특혜 주장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여학생 역시 학생회를 고객센터로 이해하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현재와는 다른 학생회의 역할, 총여의 목적, 자치활동의 의미와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학생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없다면, 총여 건설에 대한 강력한 요청은 발생하기 어렵다.

2) 구조적 취약성

총여가 설립, 유지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조직 구조에 있다. 하부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다. 총학생회 아래 단과대학생회, 그 아래 각 학부/과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다. 각 단위별로 총회를 열고 그 중 공통의 사안들은 상위 학생회 단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의된다. 여러 개의 하부단위로 구성된 학생회는 등록금 투쟁과 같은 비교적 보편적인 사안이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학부/과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고, 서명을 받거나 릴레이 대자보를 붙이고, 본관 점거 시 순번대로 자리를 지키는 등의 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완전히 상명하달식은 아니지만, 한국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군사문화는 학생회 조직에서도 뿌리 깊고(학생회 간부인 남학생들 대부분이 막 제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기도 하다), 대학 측과 대립이 심화될 때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런 위계 구조가 더욱 힘을 발휘한다.

총여의 위치는 애매하다. 총학생회의 하부단위이지만, 단과대학생회나 학부/과 학생회의 상부

단위는 아니다. 조직 구조 상 사실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단과대여학생회나 과여학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학생총회를 열 수 없다.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이 거의 없다. 시립대에서 몇 년 간에 걸쳐 준비해왔던 반성폭력학칙의 공식적인 제정을 드디어 코앞에 두었던 2001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각 학부/과에 성폭력 관련 내규를 설치하는 등 각 단위 학생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들은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국가로 치자면 중앙정부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3) 활동가 재생산의 취약성

이 조직 구조의 취약성은 활동가를 재생산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앙 단위 학생회의 선거준비는 실제 선거 공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된다. 학생회 활동가들은 과학생회나 단대학생회 활동가들, 세미나나 학생회가 주관하는 자치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과 관계를 돈독히 맺으면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듬해에 집행부로 활동할만한 인물을 탐색한다. 역량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선배들에 의해 '키워진다.' 총여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갈 네트워크가 없는 것이다. 단과대와 학과마다 하부 조직이 있어도 활동가를 찾기는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부조직이 없이 두세 개 동아리와 공부 모임이 네트워크의 전부인 총여는 어떻겠는가?

물론 여학생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만은 아니다. 투표소에서 총여 투표용지만 달라고 하는 여학생들이 있었고, 총여의 투표율은 항상 다른 학생회보다 4-5% 더 높았다. 총여도 나름의 자구책을 찾았다. 4-5개 주요 건물 여자화장실에 칸마다 작은 백지 대자보를 붙여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여학생 쉽터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집행부로 활동하기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따라 객원 집행부 제도를 두었고, 소모임 지원제도를 마련해 활동비와 공간을 제공했다.

하지만 한계는 늘 있었다. 어느 성별이든 대학생이 가장 활발하게 자치활동이 가능한 것은 2학년, 3학년 때이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2학년 때는 대부분 페미니즘과 총여의 필요를 실감하지 못한다. 여학생들이 그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업준비에 돌입하면서다. 4년제 남녀공학을 다니는 여학생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남성적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고 주어진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주요한 생존 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활동할 당시 '취업준비를 시작하면서 총여가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말하는 여학생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활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에 찾아오곤 했다.

백래시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총여가 대학 내에서 환영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설처럼 이야기 되는 '영페미'들의 90년대에도 물입도 높은 총여 활동가는 많아 대여섯 명이었고 한 대학 내에서 지속되는 페미니스트 모임은 두 세 개였다. 남학생들은 언제나 특혜와 역차별 운운했고, 자기들도 투표권을 달라거나 총학 산하에 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들

어가라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이 기각되고 무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학생회의 역할과 자치활동의 의미가 아직 완전히 '고객센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학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립대에서 총여가 오랫동안 세워지지 않은 주원인은 백래시보다는 이 두 가지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조건들이 상호작용해 내적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5. 변주

고객센터로서 학생회라는 패러다임은 확고히 자리 잡았고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소비 관계로 변모시키는 전지구적 시스템, 만성적인 청년실업, 한국 특유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지역 불균형 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의 지속을 위해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페미니즘 운동의 의제와 관점과 방식이다. 나는 현재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페미니즘의 흐름이 그런 변화를 위한 결정적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흐름의 한켠에는 과거 영페미 시절의 맹목들이 변주되는 어떤 경향이 있다. 영페미 시절의 맹목이 학벌주의와 서울중심주의, 계급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맹목은 여성혐오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맹목이며, 여성이 겪는 문제들의 원인이 오로지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주의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배타성에 대한 맹목이다. 공통점이라면 양쪽 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가진 병폐와 차별적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영페미'들이 자신의 맹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규범상 가시화하지 않은 반면, 현재의 '랜팸'들은 이 맹목과 배타주의를 전면화하여 자기 영역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상당부분 무의식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정치적인 선택이다. 후자의 맹목은 생물학적 여자 외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적극 활용한다. 그런 점에서 이 맹목은 엄청난 크기의 설명책임을 갖는다.

만일 이런 관점을 가진 이들이 총여학생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과장해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여학생을 완전히 대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여학생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학생 자신이 이미 '여성'과 '학생'이 교차하는 입장이므로, 총여는 학생이 교수, 교직원, 대학당국, 나아가서는 국가의 교육정책 및 그것에 책임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맺고 있는 권력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과 사학재단의 문제,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여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학생은 생물학적인 여자인 교수나 사학재단 이사장보다 생물학적 남자인 학생과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공유한다. 총여는 '여'학생회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여'학생'회이고 여학생'회'이기 때문에, 총여의 페미니즘 활동은 언제나 또한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와 공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치에 대한 이해 및 활동과 상호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유지되는 총여는 특정한 관점의 페미니즘 운동을 위한 도구적 공간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이는 90년대 말 천천히 학생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운동권 학생회가 걸었던 길이다. 가부장제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여학생들의 경험과 그 경험들의 차이

를 예리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총여는 실제로는 특정한 여성 집단의 이해와 요구만을 반영하면서 겉으로는 보편을 자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는 '영페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6. 비전이라기보다는 재언

거꾸로 아예 도구적 관점에서 총여를 생각해 보자.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 형태로서 총여가 적합한가? 총여가 갖는 장점은 1)재정 확보 2)공신력 3)공공성 4)대표성 등이다. 총여는 중앙단위 학생회이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배분받고 대학 재정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받는다. 활동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투표로 선출된 총여학생회장과 부총여학생회장은 수천 명의 여학생의 대표로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들의 발언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언어가 되며, 남성 학생 대표들의 보조나 조력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동등한 대표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학생 처장, 교무처장, 총장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적어도 원리상으로라도 여학생들은 총여의 뒷배가 되고 총여는 여학생들의 뒷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의 단점이 있다. 바로 이 공공성과 대표성이 발목을 잡는다. 당신에게 아무리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며 아름다운 아이디어와 기획이 있어도 써먹을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의 어떤 정치적 관점이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여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은 성매매 또는 성노동과 관련된 특강을 기획할 때, 당신이 더 동의하는 쪽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강사를 반성매매 활동 단체에서 섭외할지 성노동 운동 단체에서 섭외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썩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정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이다. 당신이 여학생 축제에서 예술대 학생들과 함께 상의를 벗어제끼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싶더라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소모임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따로 기획해 축제 기간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퍼포먼스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무대를 내주거나 팜플릿에 소개 글을 넣어준다면 대수 닷글창이 폭발할 것이다. 만일 학내에 비수술 트랜스여성이 있어서 총여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의를 하며 미친 듯이 싸우다가 총여 집행부 절반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나가버리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등록금 투쟁처럼 전체 학생회가 결집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학생 대표이자 중앙운영위원회 임원으로서 참여해야 하며, 단지 머릿수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학생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입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갑자기 성폭력 사건이 여럿 접수되어 사건 해결을 하느라 몇 달 동안 어떤 공약도 실행할 수 없고 사업도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관점과 입장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든다면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서 특정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자

집단으로서, 정치적 올바름이나 윤리적 타당성은 여전히 치열하게 파고들어야겠지만, 공공성이나 대표성 같은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돈도 없고 공간도 없겠지만, 욕도 먹어야 하겠지만 '뭐 어찌라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총여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다.

사실 과거에도 반드시 총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늘 있었다. 학생회 조직구조가 다분히 가부장제적인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몇몇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총여가 가진 장점만큼 단점도 지적되곤 했다. 이런 이유들로 총여의 대안으로 학생회 조직에서 독립적인 여학생위원회나 여성위원회, 총학의 정책 부서로서 통합, 다양한 소모임과 게릴라 그룹의 네트워크 등이 선택되기도 했다. 이것은 임의의 선택이 아니라 대학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가령 과거에 시립대라면 총여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학생회비를 교부받고 간부 장학금을 받아 모아서 활동비로 나눠 쓰지 않으면 자치활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사비를 들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총여를 대신할 운동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 시립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속한 대학의 조건과 맥락에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와 관점이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 현재 페미니즘 운동은 탈정치화된 대학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운동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탈정치화라는 분위기를 뚫고 페미니스트 정치가 소란을 피울 수 있었던 힘은 우선은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으킨 공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란이 지속력을 가지려면 다른 힘이 필요하다. 폭발적인 분노는 오래 가지 않으며 공포는 객관화와 합리화를 통해 진정된다. (최근 이 분노와 공포의 일부가 일종의 유희적 혐오로 전환된 걸로 보인다.)

하나의 의제, 하나의 쟁점, 한 가지 원인에 대한 선명한 대립이 주장하는 보편성은 곧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약한 전략이다. 지속력은 일견 분열이나 힘의 분산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온다. 여성혐오나 성차별 문제에 다른 쟁점들을 연결해 보는 것은 전선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싸움을 위해 서 있는 지점의 좌표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 싸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양한 입장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갈등에 대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때 페미니즘 운동은 생명력을 얻는다.

우리 대학의 총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학생들 사이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총여는 학칙에만 남아있고 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결국 필요성에 대한 간절한 요청 없이 학생회는 지켜지지 않는다. 총여는 특히 그 필요를 해마다 새로 증명해야만 하는 불명등 속에 놓여있다. 그 증명의 가장 큰 힘은 여학생들 자신이며, 총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 확신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은 큰 흐름이 되는 의제를 '이 총여'의 의제 중 하나로 삼는 한편, '이 총여'의 '이 구성원들'의 특수성과 내부의 다양성, 특수성과 교차성을 충분히 고려한 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다. 결국 총여의 권력기반은 결코 동일하지 않고 여자들이기만 한 것도 아닌 여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재정/공간/공신력/공성/대표성 → 총여의 장점이자 발목을 잡는 뱀

Ⅱ 라운드 테이블: 대학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Ⅱ

주제 발표 4.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 -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 과정과 분석

윤김진서(성균관대학교 어디로 가나 활동가)

‘야 잘싸웠다!’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2018년 10월 15일, 총여 재건 투쟁을 이끌었던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이하 성성어)는 함께 싸운 사람들과 우리는 잘 싸웠다고 외쳤다.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지 7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그 때 외쳤던 잘 싸웠다는 말의 무게를 종종 느끼곤 한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투쟁했다는 것과 그 때 만난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이 ‘잘 싸웠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 시기를 좋은 싸움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채찍질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다시 총여학생회 투쟁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의무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발제는 총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2018년 성균관대에서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폐지 과정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를 소개할 것이다.

1.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 과정

미투에 대답하지 않는 학생회와 대안으로서의 총여학생회

2009년을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없어 권위상태였던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를 다시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작년 초, 남정숙 전 교수님의 미투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교수님과 연대하던 몇몇 재학생 단위들은 어렵사리 마련된 학교와의 면담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선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로막혔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마지못해 ‘총학생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연대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약 두 달 뒤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 교수와 학교 측의 입장이 너무 상충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를 위한 학생회는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린 것이 총여학생회였다. 앞서 밝혔듯, 총여학생회는 거의 10년째 건설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회칙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단체였다. 2학기가 시작되던 9월 3일, 성성어는 출범과 동시에 <성균관대에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라는 자보와 각 단과대에도 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자보를 게시했다. 개강 전, 입 후보 희망 의사를 밝히며 총학생회장에게 총여학생회 선거를 열 수 있을지 문의했을 때에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던 것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 먼저 총여 회칙을 개정해야만 선거를 열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치기 시작했다. 회칙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중운과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는 선출직 임원이 없는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 의해 회칙과 세칙이 보관되어왔다는 점과 표현이 남았으며 회칙과 세칙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성성어는 일주일 뒤 중운에 해당 회칙이 진본과 같음을 입증하는 역대 총여 졸업생들의 성명서를 받아와 제출하고, 지난 총학생회가 총여실을 남자휴게실로 전환하며 회칙 진본을 유실하여 문과대 여학생위원회가 보관하던 자료가 유일하게 정통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등 모든 지적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설사 총여 회칙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 회칙인 총학생회칙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거나, 차기 총여가 세워지면 여학생들의 총의로 개정 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이 무시되었다. 일주일 뒤 성성어는 중운이 총여 선거를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개정의 범위나 선거 계획을 준비해서 차기 회의 때 모두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총학생회장은 “제 임기 중에 총여 선거 못 열면 저를 구속하실 건가요, 어쩔 건가요?”라며 농담으로 일축했다.

학생 총투표를 통한 총여학생회 폐지

결국 9월 1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차기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한 제반사항을 중운에 위임한다’라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여 회칙 정비와 선거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장은 뜬금없이 손을 들고 자신이 ‘총여 폐지 총투표’ 발의를 위해 대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총여 회칙 제 개정을 중운이 맡게 되면 중운위원으로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벽 1시 원안 가결 직후에도 경영대학 학생회장과 함께 총여 폐지 총투표 발의를 위한 대의원 서명을 이어 받았고, 그 모습에 몇몇 대의원과 참관인들이 당장 중운 위원으로 돌아가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이를 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 학캠퍼스 총여학생회 폐지의 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리더학부 회장단은 학생회 홈페이지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모아 회칙에 따라 ‘총여 폐지 총투표’를 발의하였음을 알리며 ‘총여학생회는 10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았고 회칙에 적어놓은 독립기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굉장히 학우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으므로, 학생 총의에 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의 이후 성성어는 발의안에 서명한 대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총학생회는 회칙에 공개 의무 조항이 없다는 대답과 함께 총투표를 공고했다. 성성어는 부당한 총투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총여 폐지 총투표에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투표가 시작되는 10월 10일 전까지 이 투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사유도, 발의자도, 세칙도, 대안도 없다’며 보이콧 선언문을 발표하고 부스를 차려 수천 장의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토론회조차 마련하

지 않는 총학과 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관위)를 비판하며 직접 야외토론회를 열자, 투관위는 뒤늦게 공식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총여 폐지 찬성측 토론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아 토론회는 안건 간담회로 바뀌었다. 안건 설명을 위해 혼자 등장한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장도 총투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려는 것이지 총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전체학생총투표는 '의견 수렴' 절차가 아니라 총학생회칙에 보장된, 총회에 버금가는 최고 '의결' 방식인데, 총투표를 추진하는 동안 글로벌리더학부 내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반문하자 그러지는 못했다고 답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결국 10월 10일, 총투표는 예정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 <총투표 시행세칙>을 투관위가 따로 제정해야했지만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준용한다는 이유로 이 투표에 대한 세칙 없이 진행되었다. 투관위가 정한 '투표 방해 행위' 등은 세칙에 상세히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이콧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어떻게든 투표율을 넘기겠다는 의지로도 넘은 투표독려행위를 했다. 총학생회 선거 시에도 하루에 한 번 왔던 투표독려 문자가 총투표 시기에는 하루에 3번 이상 왔었고, 투표하는 학생들에게 멘토스를 나눠주었으며,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투표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온 학교가 총투표 독려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성성어와 총여를 지지하는 재학생들은 함께 모여 4일 내내 투표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피켓팅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총여학생회는 투표율 52.39%, 찬성 83.04%로 폐지되었다. 3일차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마땅한 사유 없이 투표 기간이 연장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거의 매 시간 투표율을 공개하며 학생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저녁 6시가 조금 남은 시각, 투표율이 막 50%를 넘은 것을 확인했는지 누구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정실에서 나와 캠퍼스를 거닐던 총학생회장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외쳤다. "성균관대 소수자정치는 이제 시작이다!", "총학생회는 총여 대안책 논의하겠다는 약속 임기 중에 지키십시오!" 총여학생회 폐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순적이게도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투표 첫 날부터 투관위는 보이콧 피켓을 든 학생이 '심리적 위협감'을 준다고 투표소 주변에 서 있거나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했고,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투표 독려 물품인 멘토스를 받았다는 인증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투관위원이 아니었던 학생 대표자들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투표 독려를 진행하거나 네 명에서 지나가는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투표했느냐고 묻고, 보이콧 중이라는 학생에게는 실소를 터뜨리는 사태도 벌어졌다.

폐지 이후에도 계속된 활동

결국 총여가 학생총투표로 폐지되자, '총여 폐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모순된 언설이 힘을 얻고 재건 투쟁에 힘썼던 학생들에 대한 공격은 합리화되었다. 하지만 이를 후 학내에서 '야 잘싸웠다'라는 집회를 열어 총여학생회 재건 투쟁에 참여했던 서로를 다독이고 앞으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12월, 연세대, 동국대와 함께 연말 정산 총여 포럼/집회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를 기획해 각 학교의 총여 재건, 존립 투쟁 과정을 공유하고 백래시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계획 등을 나눴다.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에는 대학 폐미 행진 <마녀 행진>을 통해 대학에서의 페미니스트 마녀 사냥이 심각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대학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3월 말 성균관대 최초의 페미니스트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어쨌든 총여 학생회는 사라졌지만, 성성어는 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백래시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 분석

대학 공동체는 어디로 갔는가

처음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던 학내 미투 고발은 대학 공동체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곳이 결여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러한 공동체를 믿을 수 없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만 완결될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의 부재로 인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다시 제 기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대안으로서 총여를 떠올렸다. 하지만 다시 대학을 공동체로 호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백래시를 마주해야 했다. 투쟁 과정에서 마주했던 백래시는 직접적인 혐오 발언과 민주주의의 언어를 선점하는 우아한 혐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익명 커뮤니티의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여성 혐오, 페미니스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직접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글로벌리더학과 입장문이나 안건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은 마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폐지 직후에는 몰아치는 백래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나,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을 단순히 '백래시'라는 언어로만 정리할 수는 없었다. 물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그에 대한 응답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사회적으로 거세지고, 대학 또한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여 재건에 대항한 백래시는 와해되고 파편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먼저,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더 이상 대학 공간을 공동체로 사유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여성 혹은 약자를 위해 왜 모두의 학생회비를 써야 하는지, 약자를 위한 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등의 말이 총여학생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가 유효하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에게 국가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아니게 된다. (물론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을 '우리'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대학 공간은 공동체로 사유되기 보다는 각자도생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정도이기 때문에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 편으로는 와해된 공동체 속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폐지의 과정을 부추겼다. 아무도 상호 소통하지 않는 대학 공간에서 총여의 필요성과 폐지 주장은 각기 따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공식 토론회에 나갔지만 발의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에브리타임에 입장을 올리면 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되었다. 비공식 야외토론회를 통해, 유인물을 나누면서, 대자보를 통해, 화장실 포스터를 통해,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보이콧 전시회를 통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반면 대의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60명의 서명으로 총투표를 강행하면서, 공동체내 의견 수렴을 시도하는 학생회는 없었다. 그저 에브리타임 게시판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인신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바빠 움직일 뿐이었다.

공동체의 부재는 성폭력 피해 고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어 소수자 정치의 시도를 막았다. '우리는 하나!'라는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닌 공동체는 더 이상 대학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파괴된 공동체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고 차별받는 것은 약자, 소수자가 된다.

새로운 의미의 탈정치화

대학 공동체는 없다는 분석은 분명 유의미하지만, 이후 성균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잘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총여학생회를 폐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총투표에 재학생의 50%가 넘는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진행했던 포럼/집회의 이름인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총투표 혹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고 총여 폐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도, 학내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구인 총여학생회의 폐지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총투표 당시 투표관리위원회 측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투표는 유일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자 유권자의 권리 행사 방식으로 강조되었다. 총투표의 근거는 소수자 정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나, 이러한 비민주성은 투표라는 민주적 의사 표명 도구로 은폐되었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총투표를 발의한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장장과 경영대 학생회장장은 모두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총투표 발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으며, 총투표 발의 서명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받았다. 즉, 대의제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대표자성을 포기하고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총투표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개인 단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이다. 결국 총여학생회의 폐지는 개인 단위의 정치 참여만이 유효할 수 있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총투표라는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총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화된 정치는 '공동체 없음'으로 인해 정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정치 형태를 공동체 차원의 '탈정치'로 명명하였다. 탈정치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정치적 행위 혹은 영향이 말소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인화된 정치에서 공동체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공동체는 적대적인 담론들로 분열되거나 파편화되어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의 탈정치는, 개인을 정치 주체로 상정하고 투표 등을 통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복지 위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학생회, 혹은 총학생회 투표율이 저조한 현상,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일컫는 탈정치와는 의미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정의한 탈정치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며, 순수한 개인만이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경향이다.

한편, 지난 4월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여학생 위원회(이하 문여위)가 문과대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문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은 총투표에서 보였던 경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여위는 문과대학 산하의 특별기구로, 단과대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주재하거나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며 학내의 여성주의적 의제활동과 실무를 진행하는 단체였다. 80년대 초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단과대별 여학생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기구는 2012년 성평등위원회로 정식 발족된 후 2013년 여학생위원회로 개칭, 2019년까지 이어져왔다. 문과대학 산하 특별기구는 현재 문과대학 회칙 상으로 매년 문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아야만 특별기구의 지위가 존속되는 시스템 하에 있다. 재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문과대 재학생 1/10 이상의 자필서명, 예·결산안, 기구 소개서와 활동 보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4월 1학기 문학대회에서 문여위의 인준은 의결정족수 25명 중 3명의 찬성, 5명의 반대, 그리고 17명의 기권으로 부결되었다. 총여 폐지 총투표와 문여위 폐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자들의 지위이다. 총여를 폐지시켰던 총투표의 참여자들은 개인으로서의 학생인 반면, 문여위의 인준을 부결시킨 문학대회의 의결권자들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학생 대표자들이었다.

남정숙 전 교수님의 미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학생 대표자들의 결정과 문여위의 사태를 포함하여, 페미니즘 의제를 둘러싼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학생 대표자들은 계속해서 '결정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 대표자들의 태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되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합의하는 바는 명백하다. 개인으로서의 어떤 논쟁적인 정치적 의제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생 대표자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그것이다. 문여위 인준에 대한 기권이 반대의 의미이든 유보의 의미이든, 결국 그러한 의지들이 '기권'이라는 형태로 표명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은 현재 학생 정치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의 지배적인 인식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감각, 즉 대의제의 대표가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은 과거에는 정치적 패배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탄핵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전환점은 이러한 대의제의 실패를 패배주의로 전환하는 대신, 더욱 힘있는 직접 민주주의로의 지향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활발해진 청와대 국민청원(정치적 의사표현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통용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환상은 주로 다수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개인이 한 표씩을 갖는 다수결적 의사결정 모델은—동등함과 공평함의 환상을 기반으로—오직 그

것을 통해서만 유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동등하게 물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총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신화가 된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총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신화의 대리자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허락받지 못하는 학생 대표자들에게 가장 가능한 선택지는 '기권'뿐이다. 이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총투표라는 기획과 문여위 인준 의결에서의 기권은 사실상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결국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와 탈정치화에 따른 다수결의 신화화는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시대적 맥락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들이 성균관대에서 페미니즘 의제 기구들에 대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작용한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징후를 더욱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3. 대안과 이후 고민하기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생 사회는 철저하게 탈정치화 되어있지만, 여전히 성차별은 존재하고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유효하다. 대학 페미니스트들에게 대학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호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정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누군가는 학생회에 남아 가능한 정치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대안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유니브페미>는 20대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범 대학 구성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제2의 총여'가 되고자 한다. 월경공결제, 무상생리대, 여성학 개설, 여교수 증원과 같은 대학 내 제도적 변혁을 위한 이슈 파이팅에 더불어 20대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대학 안팎의 사회적 의제들에 연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학생사회에서 소멸한 대안세력으로서, 그리고 여성운동에서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던 대학생 당사자로서 어느 쪽에서도 시작한 적 없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 일던 2018년을 지나 대학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한 분석은 대학 페미니스트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와 방식을 상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총여를 다시 세우거나 엄청난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기 보다는 이러한 대학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며 대안을 상상해야 한다. 결국 페미니즘을 계속 고민할 대학 페미니스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불화하는 페미니즘'을 꾸준히 만들어가자는 용원을 빙자한 은근한 압박을 건네며 글을 마친다.

주제 발표 5.

대학에는 언제나 싸우는 여자들이 있었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 기획자)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는?



여성을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 '위릿'과 대학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 이제는 여성단체 활동가가 된 '재정'이 만나 대학에서 싸웠고, 싸우고 있는 18명을 인터뷰해 영상과 책으로 기록한 프로젝트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는?



- 눈 앞의 문제를 대응하는 것조차 힘든 대학 페미니스트들에게 현재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응원**하고 싶어서
- 현재의 운동이 어떤 역사성 속에서 존재하는지, 대학에는 늘 싸우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든든함**을 주고 싶어서
- 대학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고민을 품고,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어서
-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프로젝트는?



목차

- 들어가는 말 :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 1부 아직은 총여가 필요해
- 2부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외쳤을 때
- 3부 인권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 4부 젠더 수업의 개선을 요구한다
- 나가는 말 : 컵을 깨야만 했던 이유

* 해당 발제문은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부와 총여학생회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란?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87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들의 불평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학생 자치기구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라는 전국 대학 총여학생회장단의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학내 의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연대활동을 해나감. 주로 기지촌 연대활동(기활), 농촌 연대활동(농활), 빈민탁아운동, 일본군 '위안부' 운동, 8.15청년학생 한마당 등의 연대사업을 했음.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기 포함.
- 90년대 당시, 학내에서는 성정치문화제, 차밍스쿨 반대 활동, 생리대 자판기 설치 운동, 반성폭력 학칙 제정 및 자치규약 제정 운동, 여성학 수업 개설 운동 등을 벌임.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90년대
 - '서울대 신교수 사건(1993)'
 - '이화여대 대동제 고대생 난동 사건(1996)'
 - '연세대 한총련 여학우 성추행 사건(1996)'
 - '국민대 교수-대학원생 맞고소(1996)'
 - '성균관대 자취방 사건(1997)'
 - '서울대 구양모 교수 명예훼손 고소(1997)'
- 전국적 네트워크 : 전여대협
 - 들꽃모임 결성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주도로 반성폭력 학칙 제정 및 자치규약 제정 운동(1997년 전후 본격화)
 - 동아대, 한국 최초 대학 반성폭력 규정 학칙 도입(1997)
- 2000년대
 - 서강대 K교수 사건(2001)
 -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2002)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 대학 성폭력 아카이빙
- 2010년대
 - 대학별 총여학생회 선거 무산
 - 중앙대 서울캠 총여학생회 폐지/성평등위 전환(2014)
 - 송실대 총여학생회 폐지(2016)
 - 대학 간 연대활동 집중
 - 페미니즘 리부트
- 2018년
 - 연세대 / 성균관대 / 동국대 / 중앙대 안성캠 총여학생회 폐지(2018)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90년대

▶ 연대활동과 대학 반성폭력 운동

“(전여대협의 구조가) 이미 남성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중략)... 조금 더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던 총여학생들이 모여서 의제 중심으로 연대체를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였어요.

...(중략)...

그리고 또 하나는 들꽃 모임이라는 건데, 놀아야 한다, 이렇게 일만해서는 안 된다는 모임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 이화여대 앞에 있는 ‘피어라 들꽃’이라는 카페를 빌려놓고 매주 한 번씩 시간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모인 사람들끼리 일주일 동안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겪었던 것을 돌아가면서 성토했죠.”

- 권김현영 (97년 서여대협 북부지부 의장)

“(90년대 후반)그때 주로 했던 일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어요.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이었는데, 학교별로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공감하는 타 대학들과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학내로 갖고 와서 이행할 것인가가 중요했어요. 그런 학내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도 병행했었고요.”

- 송란희 (98년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2000년대

▶ 대학의 비정치화와 페미니즘 운동의 쇠퇴

“전여대협을 마지막으로 문닫고 나올 즈음(2000년대 중반),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보수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보수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 골자였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뉴라이트 학생회 혹은 반운동권, 비권을 표방하는 학생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중략)... 문제는 그 이전부터 학생 운동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기존의 운동을 탄압했으니...암울했죠...(중략)...

당시 총학생회가 뉴라이트 학생회에 지고 총여학생회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으니... 결국 그 다음 해에 총여학생회도 뉴라이트, 반권 쪽이 선출됐어요. 그 때의 경희대나 한양대 총여학생회 성향을 보면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었죠.”

- 조이다혜 (2000년대 중반 전여대협 활동)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총여학생회 유명무실화

“저희가 2009년 이후부터 총여학생회가 없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사실 총여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 전반에서 학생자치 자체가 굉장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운동권적인 풍조도 강화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개인주의적인 풍조가 많이 강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여학생회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들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총여학생회가 출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대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처음) 총여학생회를 만들려고 할 때부터 지금 이런 백래시를 맞는 상황까지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총여학생회를 조직하거나 총여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 최세안 (2018년 성균관대성평등어디로가나? 활동)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총여학생회를 다시 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등장

“저희 학교는 15,16년도에 총여학생회 선본이 없어서 총여가 서지 않았고, 16년도 11월에 선본이 나왔다가 투표율 미달로 인해 무산됐어요. 17년도 3월에 보궐 선거로 3년 만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게 30대 학생회 ‘동틀’이에요...(중략)...

비록 30대 회원들이 많이 소모되었지만 페미니즘 리부트가 온 만큼 반드시 총여를 내년도에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지랑 부회장이 31대 총여(2018년)로 출마했어요. 그러나 인력이 없어서 크게 활동하진 못했어요. 30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모되었고 온갖 공격이 총여학생회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외부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선뜻 총여학생회로 들어오진 못했던 거예요.”

2018년

- 윤원정(동국대 31대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총여학생회를 재건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등장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이 문제(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권력이 존재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내에 여성혐오나 성차별이 만연함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총여학생회 재건에 공감대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성성 어디가’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 최세안 (2018년 성균관대성평등어디로가나? 활동)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총여학생회가 여태껏 받았던 비판 중에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비판들이 있으니깐 그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재개편 TF팀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타대학 총여가 점점 폐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시류를 따르자는 주장이 생겨났어요.** …(중략)…”

총여학생회 폐지위원회 분들이 총투표 연서명을 2500여명의 학우들에게 받아오면서 총투표 시행이 결정되었어요. 어떤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엄청난 숫자를 보고 나니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동시에 **학내 여성주의운동이 얼마나 대중성을 띠지 못했었는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 2018년

- 이수빈(연세대 29대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운동의 역사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총여학생회 쇠퇴 원인

- IMF의 영향으로 취업난
- 신자유주의화된 대학 : 취업 중심, 대학 기업화
- 학생운동의 쇠퇴 ->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의 위기
- 반운동권 정서 / 개인주의
- 학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 / 백래시
- 페미니즘 리부트에 따른 위기의식?



- 총여학생회 후보 X / 총여학생회 투표율 미달 -> 선거 무산
- 총여학생회 폐지 및 전환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 조직구조

- 1) 위계적 구조
- 2) 선출직 대의제 / 대표체제
- 3) 단과대 없는 ‘총’여학생회?

2. 투표권

3. 학생회비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 조직구조

“여름에는 ‘여성연대 한판’, ‘여성운동 한마당’ 같이 크게 모이는 자리에서 운동조직론과 방법론을 갖고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성위원회가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제를 했어요”

- 권김현영

=> 90년대부터 조직구조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지속된 바 있으나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진 않음.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 조직구조

1) 위계적 구조

“조직 전체가 중앙 중심적이었고, 의장을 세우고 그 밑에 대오를 만드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디 총여짱님, 행사에 몇 명 모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달되는 방식이었어요. 여성들을 동원하기 쉬운 형태의 조직이었죠. 그 구조 자체가 낯설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여대협의 구조가) 이미 남성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권김현영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 조직구조

2) 선출직 대의제 / 대표체제

“선거라는 방식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갖는 스케일이 갖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중략)... 총여학생회는 반드시 대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너 때문에 총여학생회 망칠꺼냐 식의 반 협박형태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런 형태가 반민주적으로 사람을 갈아먹는 구조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 그래서 일부 대학은 여성위원회나 성평등위원회로 개편을 했었죠.”

- 권김현영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1. 조직구조

3) 단과대 없는 ‘총’여학생회?

“당시 단과대 여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 총여학생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있어서 단과대 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사업 중 하나였어요.”

- 권김현영

“당시 제가 소속되어있던 문과대에는 문과대 여학생회가 있었어요. 사회대나 다른 단과대에도 여학생회가 있었고요. 단과대 별로 여학생회, 여성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98년도에 14대 총여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는 단과대 여학생회와 단과대 별 여성주의 소모임이 많았어요.”

- 송란희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2. 투표권

“어떻게 유권자가 여성으로만 제한되어 있냐, 제 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남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정책은 전혀 피지 않는 거냐 하는 비판도 있었어요. ... (중략) ...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학적부상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들만을 유권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여학생회를 세우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학적부 상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그 분들까지 같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었어요.”

- 최세안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3. 학생회비

“왜 여학생들만을 위한 기구인데 남학생들의 학생회비까지 건어서 총여학생회비로 쓰냐는 비판이었어요... (중략) ... 사실 총여학생회나 학내 소수자들을 위한 기구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건어서 경제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략) ... 보통 총여학생회에 대한 이미지가 학생회비만 많이 받고 유의미한 사업은 하지 않고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위주로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 최세안

“총여의 지출내역을 갖고 말이 많았어요. ‘회의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세척상 문제가 없는 지출이었어요... (중략) ... 당시 저희가 사용한 회의비가 2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 과학생회장님이 회의비로 2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게 드러났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개인 계정에 사과문 올리는 것으로 끝났고, 이후에 부총학생회장이 됐어요.

- 윤원정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논쟁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3. 학생회비

특기부 관련 논란 ◎집담경 1) 성평등위원회 물품제공 사업

성평등위원장 : 여성에 경우, 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리대를 일시적으로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생리대로 힘들어하는 학우들을 위해 활동비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A : 여성을 위한 사업인 것이고, 남학생들을 위한 것은 없다.
성평등위원장 : 남성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기부 관련 논란 ◎집담경 1) 성평등위원회 물품제공 사업

대표자 A : 작년 전학대학에서 남성을 위한 연도가 제공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학생회장 : 성평등에 여학생들을 위한 단체인 것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대표자 B : 생리대 같은 경우는 필요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지만, 연도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다. (성평등위원) 남, 내만 아닌 더 넓은 성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 필자가 독립언론 '집담경'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 중앙대학교 2016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취재해 정리한 내용

성평등위원회(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개편된 총학생회 산하 기구)가 여남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라고 학생 대표자들이 요구함. 여성에게 생리대를 주는 것처럼 남학생에게도 연도기를 달라고 요구함.

2018년 총여학생회 운동은?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서울 시내 대학 총여학생회 0개?”

“페미니즘은 열풍인데, 총여학생회는 왜?”

총여학생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현재 대학은 총학생회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집회에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도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다. 과거 학생운동의 영광이 사라진 것도 한참이고, 오히려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대학에서 소수자의 의제, 페미니즘 의제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힘이 드는 일이다. 현재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겪고 있는 사이버 불링, 조리돌림, 신상유출 등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2018년 총여학생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총여 폐지 반대 운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재정

2018년 총여학생회 운동은?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문아영

▶ 2018년 총여학생회 운동의 특징

-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을 대학사회로 연결
- 성폭력 피해 생존자/소수자 등과 연대할 수 있는 선출직 대의기구의 필요성
- 비정치화된 대학에서 페미니즘 '정치화' 선언
- 기존 총여학생회의 한계 인지
- 새로운 페미니즘 연대의 시작

2018년 총여학생회 운동은?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의 문제점

- 총여학생회가 폐지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됨
- '학생들의 요구'를 핑계로 충분한 논의 없이 총여학생회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하고 강행

"유권해석과 선거예산관리를 대의원회에서 하고 총투표 관할을 해요. 저는 대의원이 아니라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한번도 총투표 관련 대의원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총여학생회장없는 총여학생회 폐지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진 거죠. 참관 요청과 논의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뤄진 바가 없었죠.**"

- 윤원정

"**이 총투표가 왜 필요하고,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총투표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중략)... 총여 폐지가 아니라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탄핵 발의 사유도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대의원 1/3 이상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잖아요."

- 최세안

총여학생회는 필요없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현재 대학의 현실은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 2018 대학 #미투 운동은 대학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드러냄
- 대자보 훼손, 여성주의 교지 훼손 등 오프라인에서의 혐오범죄 반복
- 더욱 심각해지는 온라인 상에서의 신상유출, 사이버 불링 등 혐오범죄 (디씨인사이드 대학별 게시판 -> 대학 인트라넷 게시판 -> 에브리타임 어플 등)
- 여성 교원의 부족 / 남성중심적인 학문·교수사회
- 젠더수업의 부족 / 젠더 관련 전문 교원 부족

⇒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상황

⇒ 남성중심적인 대학 문화

⇒ 대학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백래시 심각

총여학생회는 필요없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학생대표자'로서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의 의미

- 점차 대학은 보수화되고, 여성혐오와 백래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총여학생회는 그나마 대학에 명목상으로라도 남아있던 '제도권' 내 여성주의 기구였음.

"**총여학생회장이 학생중앙운영위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다른데, 왜냐하면 다른 학생회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제 얼굴을 쳐다봤거든요. 이걸 좀 아니지 않느냐, 다들 제 눈치를 봤어요. 그렇게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학생회장들 사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쉽죠."

- 윤원정

총여학생회는 필요없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출직 대의기구

-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으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고, 심의/조사/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옴.
- 학생위원 참여가 보장된 대학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대의기구인 총여학생회**가 참여해왔음(연세대 총여학생회)
- **공식화된 기구로서 '총여학생회'는 대학 #미투 운동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다시금 요구되었음**(성균관대 성평등어디로가나?)
-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대학에서는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평등위원회가 참여함(중앙대 성평등위원회)
- 학생위원으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여학생회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연대를 요청하고,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옴(성균관대 문과대 여학생위원회)

총여학생회는 필요없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출직 대의기구

- 2018년 교육부도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외부위원 확대, 학생 참여 허용, 여성 참여율 제고)'고 권고한 바 있음.
- 향후 학생위원의 참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위원의 참여를 누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총여학생회는 필요없다?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 90년대, 총여학생회가 활발하던 시기부터 총여학생회의 조직구조, 투표권, 학생회비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됨.
- 2018년부터 총여학생회와 관련한 논의가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총여학생회 운동을 한 모든 단위가 누구보다 기존 총여학생회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임.**
-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은 지 / 총여학생회를 어떤 구조로 개편할 것인지 등 모든 논의는 총여학생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깊은 아쉬움이 남음.

총여학생회 이후를 상상하기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계속되는 페미니즘 백래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근 중앙대 총학생회는 성평등위원회가 추진하던 FOC(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사업을 중단시키고, 성평등위원회를 인권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FOC는 학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단위 조직을 원하지만 조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
- 이는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대안적인 기구를 마련해도 언제나 존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임.



총여학생회 이후를 상상하기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대학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

- 여성학 교원 임용 및 젠더 수업 개설 (경희대 사회학과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반성폭력 학칙 개정 및 인권센터 설립/개편 요구
- 페미니즘 소모임, 세미나, 강연 등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 학내 성차별·성폭력 공론화 및 대응
- 연대의 지평 넓혀가기 (중앙대 FuQ:Feminists Unite with Queers / 숙명 인권연대)

총여학생회 이후를 상상하기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어떻게 대학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것인가?

- 현 시점에서 총여학생회 재건 운동은 유효한가?
- 페미니스트들이 학생자치기구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 성차별적인 학생대표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여론화
- 학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대학별/대학간 페미니스트 연대 도모

총여학생회 이후를 상상하기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학생위원 참여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 대학의 구성원 중 가장 다수는 학생이고, 대학 안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도 학생임. 학생들은 그 어떤 학내 구성원보다 대학 안의 권력관계의 작동을 잘 이해하고 있음. 학생위원이 참여하여 학생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학교 측에서는 학생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생 대표자를 요구함.
- 학생 대표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 학생위원 참여를 어떻게 다원화할 것인가?

참고자료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위릿·재정. 2018. 『대학에서 싸우는 여자들』
(텀블벅 후원 종료, 상업출판/ISBN 등록되지 않음, 추후 출판예정)

- 총여학생회의 역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김보명. 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8(1). 191-217
한중태. 2014.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활동가들의 '위기'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학위논문
이다혜. 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 학위논문